

VII. 문화의 일본 전파

1. 선사시대 문물의 일본 전파
2. 학문과 사상
3. 의학 · 의약 · 기술
4. 예술 문화

VII. 문화의 일본 전파

1. 선사시대 문물의 일본 전파

한국과 가장 가까운 이웃은 일본이다. 그러므로 일본은 선사시대부터 한국을 통하여 대륙의 문화와 한국의 선진문화를 받아 점차 개척해 나갔으며 드디어는 농경사회를 이룩하고 부족국가를 세운 뒤에 급속도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즉 한국은 아시아대륙 東端의 반도국가로서 3면이 바다에 면하였다. 그리하여 중국 역사의 변천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때로는 禍를 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륙과 해양의 중간에 위치하여 우리의 문화를 일본에 전하는 교량적인 역할을 크게 하였다.

한국과 제일 가까운 일본의 영토는 對馬島(쓰시마)이다. 한국에서 대마도까지의 직선 거리는 48~52km이며 대마도에서 일본 본토는 150km나 된다. 그러므로 대마도는 일본에서도 가장 먼저 한국의 문화를 받아들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제 고고학적인 연구 결과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었다.

1969년에 부산광역시 영도구 東三洞 貝塚에서 櫛文土器가 발견되었는데 이후 1976년 대마도에 있는 越高(고시다까 : 長崎縣 上縣郡 大字 越高)유적에서 우리 나라의 즐문토기가 출토되어 당시 이 유적을 발굴 조사한 坂田邦洋 교수는 월고유적을 부산 동삼동 패총과 직접 연결지어 한국의 신석기시대 문화가 이곳에 전해졌음을 주장하였다.¹⁾ 이러한 즐문토기는 이후 九州(큐슈)의 서북 연안에서 잇달아 발견되어 당시 한국의 문물이 이곳에 전해졌던 사실이 밝혀졌다. 長崎縣 福江市 下大津町 江湖 패총에서 발견된 曾田(소바다)式 토기, 大分縣 龍宮 동굴에서 발견된 토기, 壹岐(이끼)의 鎌崎(가마사끼)유적에

1) 坂田邦洋, 《韓國隆起土器の研究》(1978).

永留久恵, 《對馬の文化財—古代の遺産—》(杉屋書店, 1978), 27~28쪽.

서 발견된 소바다식 토기 등은 한국의 즐문토기와 직접 연관되어 한반도에서 건너간 것임을 일본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어,²⁾ 對馬島와 壹岐는 당시 일본 본토에 한국의 문화를 전해주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청동기시대로부터 고분시대에 이르는 한국의 문물은 대마도, 일기를 거쳐 일본 본토에 가득히 전달되고 있음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우선 대마도의 ‘塔の首’(도노구비)유적을 들면, 이 유적은 대마도 東北端의 比田勝(히다가쓰) 항구를 내려다보는 언덕에 있는 4基의 石箱墳으로 1971년에 발견되었으며 九州大學에서 발굴·조사하여 비로소 학계에 알려졌다. 대지 위에 4기가 있었으나 아래쪽에 위치한 1기는 대부분 파괴되어 약간의 혼적으로 석재가 남아있을 뿐이다. 2기의 석상분이 완전하여 유물이 수습되었는데 이들은 거의가 한국의 호남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는 유물들과 같다는 것이 일본 학자들의 견해이다.³⁾ 이밖에 대마도 각 처에서 많은 청동기시대의 유적 유물이 발견되고, 일기에서도 여러 곳에서 청동기시대의 유적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특히 일기의 ‘가라까미’유적 출토유물과 郷浦(고노우라) 사료박물관 소장 銅劍과 戈 등은 모두 한국에서 직접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三國志》魏志 東夷傳 弁辰條에 의하면 倭와의 관계를 약간이나마 알 수 있는데 倭人傳에는 대마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拘耶韓國(金海)에서 처음으로 一海를 건너 千餘里에 對馬國에 이른다. 그 大官은 卑拘, 副官은 卑奴母離라 한다. 사는 곳은 絶島이고 넓이는 대략 四百餘里이다. 土地는 山이 險하고 深林이 많고 道路는 짐승이 다니는 좁은 길과 같다. 千餘戶가 있다. 良田이 없고 海物을 먹고 自活하는데 배를 타고 南北에서 쌀을 사들인다(《三國志》魏志 東夷傳 弁辰).

위지 동이전이 만들어진 것은 297년으로 3세기인데 이 내용을 보면 대마도의 자연과 인문을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이 기록에 의하여 철기시대에 대마도의 상황이 파악되어 문헌에까지 기록되었음을 알

2) 坂田邦洋, 〈曾畑式土器に関する研究〉(《江湖貝塚》, 長崎, 1973), 69쪽.

永留久恵, 앞의 책, 26쪽.

3) 對馬 上縣町教育委員會, 《上縣町の文化財》(1983).

수 있어 이때에는 더욱 많은 문물의 전파를 짐작하게 한다.

九州 지역의 청동기시대를 비롯한 이후의 유적 유물은 곳곳에서 많이 발견 조사되었는데 福岡(후꾸오까)의 板付(이다쓰께) 유적은 일본 최초의 畚(논) 농사 유적으로 유명하며 이 유적에서 나온 옛날 쌀(古代米)이 우리 나라에서 발견된 옛날 쌀과 같다는 것이다. 벼농사의 경로를 고찰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문화의 영향’으로 벼농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年中 계획적으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익힐 수가 없는 기술이며 따라서 벼농사에 익숙한 사람들이 건너와 직접 벼농사를 지었음을 생각하게 된다. 여기서 벼농사에 익숙한 사람들의 渡來 경로가 문제될 것이나 이곳의 옛날 쌀이 한국의 옛날 쌀과 같다는 것은 곧 우리의 조상이 일찍이 이곳에 와서 벼농사를 지었음을 부정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벼농사의 경로를 고찰함에 있어서 또 한가지는 구주지역에서 출토되는 石器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汲田(쿤텐) 유적에서 발견된 석기는 벼이삭을 훑는 半月形石刀와 蛤刀石斧・有溝石斧・磨製石劍・長柳形石鏃 등인데 반월형석도와 함도석부는 중국과 한국에서 볼 수 있으나 유구석부와 마제석검, 장류형석촉은 한국에서만 출토되는 석기이다. 그러므로 이곳의 벼농사 유적은 곧 한국과 직결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의 중・남부지방에서 성행하였던 南方式支石墓(일명 바둑판 지석묘)가 구주의 唐津(가라쓰)市の 葉山尻(하야시리)에 산재해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한국의 것과 연결되었음은 이미 학계에 알려진 사실이다.

벼농사의 문제를 形質 인류학의 입장에서 논한 것은 金關丈夫씨이다. 金關씨는 山口縣 土井ヶ浜(도이가하마) 유적과 佐賀縣 三津(미쓰) 유적에서 발견된 人骨의 신장이 당시 일본인보다도 크며 오늘날의 경상도지방 사람들에게 가깝다는 점을 들어 “새로운 종족의 상당수가 일본에 건너와서 구주지방 뿐만 아니라 畿內(기나이) 지방까지 퍼져 나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벼농사는 쉽게 배울 수 없는 기술이라는 점과 농경에 따르는 석기와 옛날 쌀을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사실에 비추어 金關씨의 설은 설득력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주지방에서의 ‘벼농사의 시작’은 그 재배 기술을 익힌 사람들의 도래 없

이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방에 뿌리를 내린 벼농사는 백년 후에 名古屋(나고야) 지방인 伊勢灣(이세완) 연안에까지 과급되었으며 수천 년 동안 이어오던 채취경제와는 멀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일본문화의 기반은 한반도로부터 건너간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것이다.⁴⁾

이렇듯 벼농사가 일본 본토에 미치면서 구주 일대는 새로운 문화가 밀려 들었으니 한반도의 남부지역에서 볼 수 있는 無文土器와 甕棺이 이곳 구주 지역에 나타나게 된 것이다. 청동기시대 말기의 일로 佐賀縣 唐津市 宇木汲田(우키쿤텐) 유적에서 백 수십 기의 옹관묘가 발견되었으며 일부 옹관에서는 銅劍과 銅鉾가 출토되었고 최근에 이르러는 佐賀縣 神崎(간사끼) 지역의 ‘吉野ヶ里(요시노가리)’ 유적에서 수많은 옹관이 출토되어 크게 주목되고 있다.

죽은 사람을 옹관에 넣어 묻고 청동제의 무기를 부장품으로 넣는 풍속은 경상남도 김해 지방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기원 후 1세기경의 한반도 남부와 구주의 북쪽 지방이 같은 문화권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바 福岡市 西區 周船寺千里(스젠 지센리)에 있는 三所神社(산쇼진자)의 飛石(도비이시)에 얹힌 이야기를 대표로 들 수 있다. 이 도비이시는 支石墓인데 이 마을 사람들은 옛부터 ‘가라구니(韓國)’에서 날아온 것이라고 전해진다는 것이다. 이 고장의 기록인 糸島郡誌(이도시마군지)에는 “고구려로부터 천리나 되는 먼길을 거쳐왔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생겼다. 千里라는 地名도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시기에 중국 대륙에서는 큰 변동이 일어났으니 기원 후 8년에 王莽이 漢나라를 쓰러뜨리고 新나라를 세웠으며 12년에는 匈奴 정복을 에워싸고 고구려와 대립하였고 25년에 光武帝가 後漢을 세웠던 것이다. 그런데 왕망이 신나라에서 14년에 주조한 화폐인 貨泉이 44년까지 사용되었는데 이 화전이 金海와 제주도에서 발견되었고 일본에서는 대마도 豊玉町(도요도마 마찌)과 壹岐의 原辻(하라노쓰지), 糸島(이또시마)반도의 志摩町(시마쵸) 등지에서 출토되

4) 李進熙, 《韓國과 日本文化》(乙酉文化社, 1982), 11쪽.

었다. 이와 같이 문헌과 유적 유물이 보여주듯 1세기로 접어들면서 한국의 문물은 모든 것이 九州지방에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2세기는 일본의 청동기시대의 말기로 한반도에서 조성한 동검과 동모, 銅戈 등이 자취를 감추고 그 대신 그것들을 모방한 大形の 劍과 鉞가 나타났다. 이들의 모양은 한국의 것을 닮았으나 대형으로 과장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용적인 무기가 아니라 제사를 지내기 위한 도구로서 주조되었던 것이다.⁵⁾

이렇듯 한반도의 문화가 구주지역에 새롭게 자리잡을 때 이곳의 문화는 瀬戶内海(세도나िका이)를 거쳐 大阪灣(오오사가완) 연안을 비롯한 일본 본토에 상륙하였으니 이 지역에서 발견되는 銅鐸들이 그 증거인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작은 동탁이 크게 변하고 장식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농경사회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에 없어서는 안 될 도구였던 것이다. 이 시기에 이르러는 銅鏡이 나타나고 石器가 자취를 감추게 되었으니 鐵로 만든 무기와 농기구가 보급되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선사시대의 한반도 문물이 일본으로 전달된 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신석기시대의 자취가 역력하다. 특히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후 2세기에 이르는 기간에 한반도로부터 수많은 사람이 일본으로 건너가 청동기, 벼농사의 기술, 철기 등의 새로운 문화를 전했으며 이에 따라 墓制・思想 등 많은 문물을 전하였으니 일본의 ‘새로운 문화의 서광’은 항상 한국으로부터 왔다.

고구려・백제・신라는 기원전 1세기에 초기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3세기부터는 고대국가의 체제를 정비하면서 점차 발달하고 있었다. 4세기후반에 불교를 수용하면서 삼국의 문화는 사상・학문・제도・예술 등 모든 면에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리하여 고도화한 삼국문화는 곧 일본으로 전해져 일본 고대문화 형성의 기틀이 되었다. 문화의 전파는 수준 높은 문화권에서 미개한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필연적 사실이다. 신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에 걸쳐 일본에 전달된 우리의 문화는 일본을 깨우쳐 주었다. 이제 삼국의 문화는 역사시대에 이르러 보다 차원 높

5) 李進熙, 위의 책, 20쪽.

은 문물이었으니 이러한 고도의 문화가 일본으로 전해져 일본의 고대국가 성립과 문화형성의 기반을 이룩하게 되었다.

2. 학문과 사상

삼국의 찬란한 문화는 한국과 이웃하고 있는 일본에 전파되어 많은 영향을 주었다. 삼국문화의 일본전수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백제였다. 그것은 백제가 삼국 가운데 일본과 정치적으로 연결되어 친선관계가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일본에 학문을 제일 먼저 전해준 나라는 백제였으니 일본의 史書인 《古事記》와 《日本書紀》에 잘 보이고 있다.

즉 《고사기》 중권 應神天皇 20年 己酉條에 보면 백제의 照古王(近肖古王)이 阿知吉師와 和邇吉師를 일본에 파견하였는바 이때 화이길사는 《論語》 10권과 《千字文》 1권을 가지고 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후일에 아지길사는 阿直史等の 祖가 되고 화이길사는 文倉等の 祖가 되었다고 한다.

《일본서기》 應神天皇 15年 甲辰條와 應神天皇 16年 乙巳條에 보면 백제인 阿直岐는 능히 經典을 탐독할 수 있는 자로서 일본에 건너가 菟道稚郎子の 스승이 되었고 그후 博士 王仁이 일본에 초빙되어 가서 역시 經學을 전해 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두 책의 내용을 좀더 주목해 보면 당시 일본에서 荒田別(아라다 와께)와 左別(가무나기 와께)를 백제에 보내어 학자를 구하니 임금의 명령으로 왕인이 《논어》 10권과 《천자문》 1권을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갔는바 그의 해박한 經書의 지식으로 하여 일본 應神主의 신임을 받고 太子의 스승이 되었으며 이후 일본의 ‘學問의 祖上’으로 숭배되었다는 사실이다.

한국에는 고대의 관계기록이 없으나 조선시대에 이르러 몇 가지 문헌에 전라남도 靈巖郡 郡西面 鳩林里 지역의 왕인박사 史蹟에 관한 내용이 보이며 현재 이곳에는 구전되는 왕인박사에 관한 역사와 유적이 여러 곳에 남아 있다. 현지에서는 영암군 당국은 물론 王仁博士顯彰協會 등 여러 모임에서 그 동안 국내·외의 왕인박사 관계 사적을 조사하여 많은 論著를 발표하기

도 하였으며 일본에서도 왕인박사 묘소 등 관계 사적을 보호하는 모임이 있어 여러 권의 논저를 출간하고 있다. 그러나 사학계에서는 왕인박사에 관한 사적조사와 연구가 아직은 미흡한 것 같으며 혹자는 부정적인 시각마저 보이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왕인박사가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기록이 한국의 史書에는 없으며 漢城 도읍기인 당시의 상황에서 渡日이 가능하였겠느냐는 생각에서 나타나는 의문인 것 같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전파된 문화는 이미 삼국시기 이전부터 다양한데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문물을 비롯하여 삼국시대에는 고구려·백제·신라의 문화가 일본 각 지역에 넓게 퍼졌음을 볼 수 있으므로 한성 도읍기의 왕인박사 도일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도일 사실의 기록 문제는 당시 젊은 왕인박사가 도읍지인 한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靈巖에서 일본으로 건너갔으니 《三國史記》나 《三國遺事》에 누락될 수도 있는 일이 아니었던가 한다. 오늘날 우리는 이들 史書에 누락된 역사적 사실을 각 지방 답사에서 얼마든지 찾아내고 있음으로 누락문제로 의문시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한편 일본에서는 문자를 전해주고 학문을 가르쳐준 국가의 은인이니 그들의 사서에서 명확히 밝히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일은 마치 고려 제4대 光宗 때 과거제도를 실시케 해준 중국의 雙冀가 중국측 사서에는 보이지 않으나 《高麗史》와 《高麗史節要》에는 명기되어 있는 일과 같다고 하겠다.

현재 영암군의 구림리에는 왕인박사의 生家址인 聖基洞이 있고 이에 따르는 몇 곳의 遺址와 도일시 출항 포구였다는 上台浦 등의 사적지가 있다. 그리고 일본에는 大阪府內 각 市 지역에 왕인박사와 관련된 많은 유적과 그의 자손들과 관계된 각종 사적이 다양하게 남아있다. 일본에서 조사된 왕인박사 관계 사적은 오히려 한국내의 사적보다 훨씬 많다.

예컨대 八尾神社(大阪府 八尾市 近鐵 八尾驛 근방)는 왕인의 후손이 그의 祖神 왕인을 제사 지내는 곳이며 八坂神社(大阪市 淀區 大仁本町)는 곧 王仁神社로 왕인을 제사 지내는 곳으로 王仁像이 봉안되어 있고 王仁聖堂址(大阪府 松原市 岡町)는 일찍이 왕인이 이곳에서 講學하던 자리라 하여 추앙하고 있는 곳이다. 王仁墓(大阪府 杖方市 藤坂元町)는 왕인의 묘소로 많은 참배객이 끊이

지 않고 있는데 이밖에 方違神社・高石神社・白鳥神社・西琳寺・藤井寺・野中寺・王仁池・和爾下神社・왕인마을 등 20여 곳에 왕인과 관계된 사적이 있음이 조사되었다. 그런데 九州 佐賀縣 神埼郡 神埼町 竹原지구에 鰐大明神社가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왕인석상과 ‘王仁天滿宮’이라 새겨진 석비가 전하고 있다. 신사가 위치한 죽원지구는 한국으로부터의 도래인이 최초로 상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인데 인근에 ‘吉野ヶ里’ 역사공원유적이 있어 더욱 주목된다. 따라서 왕인이 이곳을 거쳐 일본 내륙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현지 관계자들의 말은 주목을 끈다. 이와 같은 연유로 인하여 이 신사에서 왕인을 神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다. 신기정에서 세운 안내판을 보면 “王仁이 지금으로부터 천 수백 년전에 應神天皇의 초청을 받아 백제로부터 많은 기술자 집단을 데리고 옴으로써 일본 최초의 漢字 교본인 《천자문》과 유교의 원전인 《論語》를 전하였다. 왕인박사 일행은 조선반도의 南西端의 목포항으로부터 渡海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일본의 어디에 상륙하였는지는 기록에 없다. 혹시 吉野ヶ里의 도래인들처럼 이곳 죽원지구 부근에 상륙한 것은 아닌가”라고 쓰여져 있다.

이와 같은 모든 점을 종합해보면 백제로부터 일본에 학문이 전해지고 그 주인공은 왕인이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에 연구결과가 집성되어 출간된 바 있다.¹⁾

당시 백제의 왕인박사가 일본에 가지고 갔다는 《논어》는 《阿曇集解論語》이고, 《천자문》은 魏나라의 鍾繇의 것이라고 李丙燾 박사는 말하고 있다.²⁾ 백제는 일찍부터 漢郡縣과 접촉이 있었고 근초고왕대에는 東晉과 직접 통교하여 동진으로부터 鎮東將軍領樂浪太守라는 칭호를 받기도 하였다.³⁾ 그러므로 동진이 학술과 사상이 백제에 전달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자가 일본에 전해진 것은 이보다 앞서서 《삼국지》 위지 동이전 왜인조에 보이는 바와 같이 왜의 작은 나라들이 중국 및 낙랑·대방군과 교섭함으로써 이루어지게

1) 鄭永鎬, 《百濟王仁博士史蹟研究》(韓國敎員大 博物館 學術調查報告書 第9輯), 1~188쪽.

2) 李丙燾, 《韓國古代史研究》(박영사, 1976), 579쪽.

3) 《晉書》권 9, 簡文帝 咸安 2년.

된 것이나 본격적으로 한문이 전달된 것은 왕인박사의 일본행을 시발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이렇듯 백제가 일본에 한문을 전함과 동시에 유학을 전수시킨 것은 백제가 이후 한성으로부터 熊津・泗沘로 도읍을 옮기고 나서도 끊임없이 계속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일본서기》에 자주 보이는 백제의 五經博士 파견 사실로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다.⁴⁾ 백제는 이미 근초고왕대에 博士制가 갖추어져 있었으므로 유학에 대한 이해도 백제적인 것으로 소화되고 유학사상 역시 정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일본에 전달한 유학과 그 사상도 백제적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백제로부터의 학문과 유학사상의 일본 전수는 곧 일본에서의 학문과 유학사상의 보급을 보게 되고 유교정치이념의 이해를 가져오게 되어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서기》推古天皇 11년조와 12년조를 보면 당시 섭정을 하고 있었던 聖德太子(쇼토쿠다이시)가 12階冠位와 17條 헌법을 제정하였다는 것이다. 冠位 12階는 德・仁・禮・信・義・智를 각각 大小로 나누어 12계로 한 것인데, 이것은 유교 덕목 그 자체를 이용해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17조 헌법은 儒佛사상에 입각하여 여러 신하들을 훈계하는 지배 원칙으로서 제2조의 ‘篤敬三寶云云’을 제외하고는 각 조목의 대부분은 《논어》나 《孝經》・《禮記》・《管子》 등 유교 典籍의 사상을 따거나 구절을 이용하고 있어서 이것 또한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관위 12계와 17조 헌법을 제정한 성덕태자는 불교관계는 고구려 승려인 惠慈에게 배우고, 유학은 박사 覺賀에게서 배워 통달했다고 《일본서기》추고천황 원년조에 기록되고 있다. 여기에서 각가에 대한 인적 사항은 분명하지 않으나 일본에 유학을 전달한 나라가 백제이고 또 백제가 일찍이 박사제를 수립하여 오경박사를 일본에 파견한 일이라던가 각가가 박사란 칭호를 갖고 있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백제사람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따라서 그의 유학사상은 성덕태자에게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그것은 바로 백제의 유학사상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일본

4) 《日本書紀》繼體天皇 7년 및 欽明天皇 15년.

에서 유학이 보급되고 유학사상이 이해되며 관위 12계와 17조 헌법을 통한 유교정치이념이 정치에 반영되었다는 점 등을 생각해 볼 때 백제의 유학사상이 질게 반영되었을 것이며 일본으로 건너간 백제계 사람들이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道家思想과 五行思想이 삼국시대에 자리잡고 있었으나 언제 한반도에 들어왔는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고구려에서는 4세기말부터 5세기초에 걸쳐 四神圖가 고분 벽화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7세기에 이르러는 벽화 고분의 주류가 사신도로 변하게 되었다.

《삼국사기》고구려본기 榮留王 7年條(624)를 보면 “唐나라 高祖는 道士에게 명하여 天尊像 및 道法을 가져와서 老子를 講論하게 하므로 王과 國人이 이를 청강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백제에서는 근초고왕대의 장군 莫古解가 근초고왕의 태자에게 간하기를 “일찍 道家의 말을 들으면,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고 하는데 지금 소득도 많거늘 어찌 더 많이 구하려 하리오” 즉 ‘知足不辱 知止不殆’라는 老子道德經의 구절을 인용한 것이 《삼국사기》백제본기 近仇首王 즉위년조에 보인다. 이것은 근초고왕 30년(375)에 고구려의 故國原王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백제를 침공했을 때 太子(後에 근구수왕)가 이를 격퇴하고 또다시 추격하려고 함에 장군 莫古解가 태자에게 간한 이야기이다. 이와 같은 고구려와 백제의 역사로 보아 도가사상이 일찍부터 한반도에 전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 사신도 고분 벽화의 영향은 곧 백제에 미치어 公州 宋山里 6호분과 부여 陵山里 1호분과 같이 사신도 벽화 고분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러한 四神思想과 五行思想은 묘지 선정에도 반영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밖에 부여에서는 山景文塹이 출토되었는데 이 塹에도 도가사상과 오행사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周書》百濟傳에는 ‘又解陰陽五行’이라 하여 백제사람들이 음양과 오행사상을 이해하고 있었음을 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삼국시대에 이미 도가사상과 오행사상이 성립되어 성행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도가사상과 오행사상이 비롯되는 것은 학문의 전수와 같이 백제로부터 전달된 것으로 생각된다. 백제본기의 막고해 사례로 보아 근초고왕대

에 이미 도가사상이 짙었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주목되는 일은 백제의 왕인박사가 일본에 전한 《논어》가 《아안집해논어》라는 점이다. 당시 중국은 남북조시대로서 도가의 학문이 성행하던 때였다. 이때에 阿曇은 동진시대의 유명한 道家였으므로 도가적 입장에서 유교경전을 해석하고 주해하였을 것이다.⁵⁾ 그러므로 아안이 집해한 《논어》에는 도가사상의 요소가 다분히 들어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아안집해논어》를 전수한 왕인도 도가사상을 이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⁶⁾ 이렇게 이해한다면 왕인이 일본에 《논어》와 《천자문》을 전한 것은 유학만의 전수에 그치지 않고 도교사상의 전달도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그의 후손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東六部·西六部가 훗날 도교의식의 제사를 담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도 짐작이 된다.⁷⁾

한편 《일본서기》 추고천황 10년조를 보면 百濟의 승려 觀勒이 曆本及天文地理遁甲方術之書를 전하고 또 선발된 書生 가운데 大友村主 高聰에게는 天文遁甲을, 産背臣 日立에게는 方術을 가르쳐서 盛業케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관록스님 자신이 일본 불교계의 중심 인물로서 그에 의한 천문·방술의 교육은 도가 및 오행사상의 유포에 중요한 작용을 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이 백제인에 의한 도가사상과 오행사상의 전수는 정치적인 면에서도 반영되었으니 聖德太子傳曆에 의하면 태자가 12계 관위를 제정함에 있어서 “太子始制五行位 德仁義禮智信各有 大小德攝五行也 故置頭首”라 하여 유교 덕목에 오행사상을 가미시킨 것을 알게 한다. 12계 관위의 제정이 관록스님이 일본으로 건너가 오행사상을 전수한 바로 이듬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성덕태자가 오행사상을 이해, 터득함에 있어서 관록의 영향이 강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밖에 오행사상은 일본에 있어서의 고분 벽화에도 반영되어 이후 조성된 飛鳥의 高松塚 고분에서는 人物行列圖와 함께 사신도가 배치된 벽화가 나타났다. 이 고분 벽화는 여러 학자가 주장하듯이 벽화를 그린 사람이 고구려 계통이라 하겠는데 이러한 점으로 보았을 때 고구려인에 의한 오

5) 馮友蘭, 《中國哲學史》, 602~605쪽.

6) 李能和, 《韓國道教史》(東國大, 1959), 58~61쪽.

7) 李能和, 위의 책, 50쪽.

행사상의 전달도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모든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일본에 있어서 도가사상과 오행사상의 성립도 백제와 고구려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이 두 나라 사람들의 활동에 의하여 일본의 정치와 사회생활에 크게 반영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불교사상에 있어서는, 고대국가 성립 과정에 있어서 사상적 통일에 크나큰 공헌을 한 것이 곧 불교였다. 삼국에 있어서 불교의 수용은 고구려는 소수림왕 2년(372)이었고 백제는 침류왕 원년(384)으로 4세기 후반의 일인데 신라는 법흥왕 14년(527)에 공인되었으니 두 나라에 비해 약 150년이 늦은 셈이다. 그러나 신라에는 눌지왕대(417~457) 초년에 이미 낙동강유역에 불교가 들어와 있었으므로 신라의 불교 전수도 4세기 후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의 불교 전수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일본서기》欽明天皇 13년조(552)에 백제 성왕이 釋迦佛金銅像 1軀와 幡蓋 若干, 經論 若干卷 및 流通禮拜功德의 讚表를 첨부하여 보냈으니 이것이 불교전래의 시초라는 것이고, 또 하나의 설은 〈元興寺迦藍緣起拜流記資材帳〉의 戊午年(538)인데 538년 설은 백제의 성왕때 太子像과 灌佛器一具, 佛書一卷 등을 가지고 일본으로 왔다는 것으로 이 兩說은 각기 타당성이 있는 내용이다. 538년과 552년은 14년의 차이로 양설이 모두 백제 성왕때의 사실인 점이 주목되며 역시 일본 불교의 시발이 백제에 있었음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

백제는 서울을 熊津(지금의 公州)으로 옮긴 후 大通寺와 같은 큰 사찰을 창건하였고 웅진 도읍기에 축조한 武寧王陵의 玄室 벽면은 蓮花紋塼으로 쌓여 있으며 부장품으로 불교적인 내용물이 출토되고 있어 불교 신앙이 융성했던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성왕은 謙益이 인도에서 가지고 온 梵文五部律을 번역하게 하여 백제 新律을 성립시켰으며⁸⁾ 중국의 梁나라로부터 〈涅槃經義疏〉를 청해오는 등 敎學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백제의 불교가 성황을 이루었던 사실을 《周書》백제전에 ‘僧尼寺塔甚多’라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일본에 전수된 불교는 백제적인 불교였을

8) 李能和, 〈百濟時代 彌勒佛光寺事蹟〉(《朝鮮佛教通史》, 新文館, 1918; 韓國學資料叢書 4, 永信아카데미 韓國學研究所, 1977, 영인).

것으로 짐작된다. 이후 백제의 문물들은 끊임없이 일본에 전수되어 律師・禪師・比丘尼 등의 승려들을 파견하며 經論을 보내고 瓦博士・鑪盤博士・造佛工・造寺工 등 사원건축에 중심이 되는 기술자들을 파견하여 많은 사원을 창건하고 불상을 조성하였으니 이러한 사실이 《일본서기》敏達天皇 6년조와 13년조, 그리고 崇峻天皇 원년조에 보이고 있다.

일본에서 불교를 수용하게 된 것은 당시 불교 숭배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蘇我氏와 불교를 배격하고 재래의 國神信仰을 주장한 物部氏와의 대결에서 소아씨가 승리하여 권력을 장악함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소아씨는 추고천황대의 실력자로서 이후 불교를 크게 장려하고 法興寺(飛鳥寺)를 창건하였는데 이 소아씨는 백제계통의 사람으로 한반도에서 이주한 세력 집단을 배경으로 하여 정계에 두각을 나타낸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다.⁹⁾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일본의 불교는 백제로부터의 전래뿐만 아니라 일본에서의 흥법과 장려에도 백제계 사람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불교가 전해진 후 일본지역에서 승려가 된 사람들의 대다수가 백제계 사람이 아니면 고구려와 가야계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과¹⁰⁾ 백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 승려와 기술자들을 보내어 불교신앙을 장려했다는 점으로도 입증할 수 있다. 이후 일본의 불교는 《일본서기》추고천황 32년조에 “當是時有寺有冊六所 僧八百十六人 尼五百六十九人 并一千三百八十五人”이라 함과 같이 신앙의 확대를 보았던 것이다. 이것은 또한 불교적인 면에도 자극을 주게 되어 善信尼 등 3명의 尼僧이 戒學을 배우러 백제에 왔으며¹¹⁾ 따라서 교학의 발전도 보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일본에서의 교학적인 면의 발전도 백제와 고구려 승려들의 활동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우선 계학을 볼 때 백제의 계학은 이미 성왕대에 新律의 성립을 보아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었음이 짐작되거나 백제가 일본에 율사를 자주 파견한 일이라던가 일본의 善神尼 등이 백제에서 계학을 공부하였다는 점 등을 생각해 볼 때 일본의

9) 李弘植, 《韓國古代史의 研究》(新丘文化社, 1971), 344~347쪽.

10) 金錫亨, 《古代朝日關係史》(勁草書房, 1969), 456~457쪽.

11) 《日本書紀》, 崇峻天皇 원년.

계학은 바로 백제의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계학뿐만 아니라 三論을講한 관록스님은 백제의 승려였으며 원흥사에 살면서 三論宗을弘布하고, 일본 三論宗의 시조가 된 혜관은 고구려의 승려였고 唐吉藏에게 三論을 전수받아 일본에 전한 道澄도 고구려의 승려였다고 한다.¹²⁾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일본의 삼론학이 삼국의 승려들의 활동에 의하여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당시 법문의 領袖로 추앙을 받고 있던 道藏은 백제 사람인데 그는 成實論을講하여 成實學을 펼쳤으며 그가 편찬한 成實論疏 16권은 이후 成實의講學에 중심이 되었다고 한다.¹³⁾ 이것도 일본의 성실학이 백제인에 의하여 성립되고 전파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덕태자는 고구려 승려인 惠慈로부터 불교를 배웠으므로 그의 불교 사상에는 혜자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것은 혜자가 三寶의 棟梁으로 칭송을 받았고 《일본서기》 추고천황 3년·4년조에 보이듯 추고천황 4년(596)에는 흥법사가 창건되어 그 주지로 임명되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혜자의 활동은 고구려 불교사상이 일본 불교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추고천황 32년(624)에는 어떤 승려가 祖父를 구타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처음으로 僧正·僧都 등의 僧官을 두어 사찰과 승려를 감찰하도록 하였다고 하는데 이 僧官制 설립에는 백제의 승려 관록이 깊이 관여하였던 것 같다. 그것은 관록스님이 ‘승려의 조부 구타사건’을 ‘以僧尼未習法律 輒犯惡逆’으로 파악했다는 《일본서기》 추고천황 32년조의 기록이라던가 또는 관록스님이 初代 僧正으로 임명되어 僧尼의 기강을 바로 잡았다는 점에서 알 수 있는 것이다. 僧官濟 실시 이후 초대 僧都에 고구려의 德積스님이 임명되었고 2대 僧正에는 고구려의 慧灌스님이 임명되었다는 사실이 《일본서기》 초고천황 33년조에 기록되어 있다. 이 혜관스님은 일본 삼론종의 시조가 되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실 등은 결국 일본에 있어서의 승관제 실시도 백제와 고구려 승려들의 활동과 영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내용에서 볼 때 일본에 있어서 불교는 초기 전파 과

12) 李能和, 앞의 글, 28~30쪽.

13) 李能和, 위의 글, 43~44쪽.

정뿐만 아니라 교학의 발전, 승관제도의 수립, 불교사상의 정치에의 반영 등 모든 면에 있어서 백제와 고구려 승려들의 활동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고대국가 성립의 정신적 이념으로서의 불교사상은 三國에서 성립된 불교상이 전달된 바로 그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역학 · 의학 · 기술

백제는 일찍부터 宋의 元嘉曆을 사용하고 있었으니 《周書》백제전에 “...用宋元嘉曆 以建寅用爲歲首”라는 기록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公州 武寧王陵 출토 買地券의 月朔과 日干支가 원가력과 부합되고 있는 점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그리고 《주서》백제전에 백제의 外官 10部중에 日官部가 있고 《일본서기》에 백제의 曆博士가 보이므로 백제에서는 일찍이 曆관계의 업무를 관장하는 官署가 갖추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에 있어서는 日曆 관계에 대하여 《大日本史》陰陽志 註에서 “《日本書紀》의 上世帝紀에는 日食의 기록이 없는데 推古帝 36년에 처음으로 일식을 쓰기 시작하였다. 法隆寺 金堂藥師...飛鳥寺 釋迦像光背 등은 모두 간지를 쓰고 있어 이것은 曆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되겠다. 지금 원가력에 의거하여 추고천황 12년 甲子에서 持統帝 5년 辛卯年까지 月朔干支를 照合하면 不適合이 하나도 없어 원가력을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여 推古 12년 이후 원가력을 사용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에서 원가력을 사용하게 된 것도 백제 사람들의 활동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추측은 《일본서기》欽明天皇 15년조에 백제에서 역박사를 파견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원가력 시행에 대한 하나의 증거로 飛鳥寺의 건립과 일치된 석가상이 백제인에 의하여 제작된 것이라는 데서도 가능한 것이다. 특히 추고천황조의 원가력 시행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백제 관록스님의 활동이다. 관록스님은 추고천황 10년에 《曆本天文地理通甲方述》의 책을 일본에 전하고 일본 書生에게 역법을 전수하였다는 사실이 《일본서기》 추고천황 10년조에

기록되어 있다. 이때 관록스님이 일본에 전한 曆은 원가력으로 추정하고 있는데,¹⁾ 그렇다고 하면 추고천황 12년의 역의 시행에는 관록스님의 원가력 전수와 그 교육이 크게 기여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백제의 역관계 문화도 일본에 전달되어 그 영향이 컸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백제는 의술과 약업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크게 발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주서》백제전에 ‘…亦解醫藥卜筮占相之術’이라 하여 이러한 추정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또한 內官部中에 藥部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의술과 약업 관계의 제도도 정비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백제의 의술과 약업의 지식과 기술도 일본에 전수되어 일본에서 약업이 성립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서기》흠명천황 4년조에 백제에 醫博士와 藥物을 요청한 사실이 보이며 15년조에는 백제에서 일본에 의박사와 採藥師를 파견한 기록이 보인다. 백제에서 일본으로 의박사와 채약사를 파견한 것은 백제의 의술과 약업의 기술이 그대로 전수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의약술의 전수와 아울러 의약서적도 일본에 전해졌던 것이니 기원 후 984에 圓波康賴가 편찬한 《醫心方》30권에는 여러 나라의 처방서와 함께 《百濟新集方》이라는 의술서가 인용되어 있고 약간의 내용도 기록되어 있으니 이러한 내용은 백제의 의약술이 일본에 전수된 역사적 사실을 실증하고 있는 것이다.²⁾ 또한 이 《의심방》에는 《新羅藥師方》이라는 의술의 책이름도 보이고 있어 신라의 의술과 의술서적도 일본에 전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삼국에서 역학과 의약 등이 일본에 전수된 내용을 살펴보면 거니와 이밖에 《일본서기》에는 삼국의 技藝가 일본에 전수된 사실을 상당한 내용으로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樂人의 파견에서 짐작되는 음악의 전수, 衣工과 縫女의 파견에서 알 수 있는 수공업기술의 전파, 저수지 축조에 따른 제방 축조기술 등의 전수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일본의 역학, 의술, 약업, 기예 등의 성립도 삼국의 문화적 영향과 지도하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1) 李丙燾, 《韓國古代史研究》(박영사, 1976), 585쪽.

2)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발행처, 발행년도 不明), 9~10쪽.

4. 예술 문화

일본은 일찍이 선사시대부터 한반도의 문물을 받아들여 문화가 점차 발달하기 시작하였는데 6세기 초반(538~552) 백제로부터 불교를 수용한 이후 조형적인 예술 문화가 더욱 발달되었다. 즉 불교신앙이 확대됨에 따라 불교적인 조형미술이 발달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불교의 弘法과 敎勢의 확장에 따라 사찰과 불탑의 건립으로 건축미술이 발달되고 불상과 불교적인 조각물의 조성으로 조각술이 발달되었으며 아울러 불교적인 회화(佛畵: 幀畵)와 공예미술 등의 발달을 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불교문화는 문헌상으로나 현존 유적 유물, 그리고 불교 고고학적인 발굴 조사에 의하여 증명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잊어서는 안될 것은 고대 일본의 불교문화, 즉 조형적인 미술의 성립과 발달에 있어서 어느 한 나라 뿐만이 아니라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의 불교문화가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일본에 있어서 불교의 전수와 교학의 발달이 한반도에서 건너간 세 나라의 승려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들의 활동에 의하여 정착하였으므로 불교신앙과 불교사상은 바로 삼국이 定立시킨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사원과 불탑의 건축, 불상 조각, 불교 회화, 불교적인 공예 등 불교와 관련된 모든 불교예술이 삼국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우선 문헌상으로 보면 《일본서기》敏達天皇 6년조(577)에 백제가 造寺工과 造佛工 등을 파견한 사실이 있고 崇峻天皇 원년조(588)에는 佛舍利 奉送과 함께 많은 승려와 寺工·鑪盤博士·瓦博士·畵士 등을 파견한 사실이 보인다. 이와 같이 백제로부터 조사공, 사공이 파견되었다는 것은 사원 건축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고, 조불공이 파견되었다는 것은 불상 조성 등 조각의 발달을 알 수 있으며, 화사가 파견되었다는 것은 회화나 불화 등의 발달, 와박사·노반박사 등이 파견되었음은 공예미술의 발달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각 분야에 걸쳐 전문가들이 빈번하게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것은 고대 일본

의 사원 건축과 불상 조각 등 모든 조형적인 미술 문화가 이들에 의하여 조성되고 지도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며 이러한 상황은 삼국의 모든 예술이 직접적으로 일본에 옮겨져 큰 영향을 미치게 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의 僧官制 성립에 있어 백제의 승려 관륙이 깊이 관여한 뒤 초대 僧正으로 취임하였고 初代 僧都에는 고구려 승려 德積이 취임하였으며 2대 승정에 고구려의 해관스님이 취임하였는바 여기에 백제로부터 많은 불교문물의 기술자가 초빙되어 왔음은 우리의 불교문화가 그대로 일본에 심어졌음을 쉽게 알 수 있게 한다.

우선 佛寺 건축에 있어서 伽藍배치를 살펴보면 大阪 四天王寺의 堂塔 배치가 백제의 一塔式 배치와 똑같다. 그것은 부여의 軍守里寺址에서 남쪽의 中門으로부터 木塔・金堂・講堂이 차례로 南・北 子午線상에 배치되고 그 주위를 廻廊으로 둘러 양식과 같다는 것이다. 즉 四天王寺도 2차대전후 복원된 현재의 모습이 자오선상에 남쪽으로부터 중문・불탑・금당・강당이 배치되고 그 주위를 회랑으로 돌리고 있다. 부여의 정림사도 같은 一塔一金堂의 배치로 불탑이 석탑인 점이 다를 뿐 역시 자오선상에 남쪽으로부터 중문・5층 석탑・금당・강당이 배치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일본 최초의 大伽藍인 飛鳥寺(法興寺)는 당시 세력가였던 蘇我씨의 願刹로 백제의 造寺工에 의하여 건축된 것인데 이 사찰의 배치는 불탑을 중심하여 東・西・北 세 방향에 金堂 1棟씩 배치하여 3금당의 가람양식을 보인다. 이러한 양식은 평양의 淸岩里寺址의 고구려 가람양식과 같은 것이다.¹⁾ 그리고 일본에서 가장 오래인 불탑인 奈良縣 법륜사 5층 목탑의 木造架構는 부여 錦城山の 天王寺址에서 출토된 금동탑재 양식과 흡사하여 그 연원을 백제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한편 신라의 미륵신앙이 성덕태자 신앙으로 化成되었다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탑의 건립에 있어서도 신라의 영향이 컸다는 것이다. 즉 국가불교의 실천이라는 목적으로 경영된 高麗大寺와 九層木塔을 모범으로 하여 만든 것이다.²⁾ 이와 같이 불교가 전해진 후 일본에 있어서 불교사

1) 朝鮮總督府, 〈平壤炭里廢寺址の調査〉(《昭和十三年度古蹟調査報告》).

2) 北野耕平, 〈日本에 있어서의 石造基壇의 成立과 初期의 新羅系要素〉, 《韓日古代文化交渉研究》, 216~217쪽.

원의 표본이 되는 이들 중요 사원과 불탑 건립이 삼국의 寺工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또한 삼국의 가람배치와 그 건축 양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은 삼국의 불교문화가 직접적으로 크게 작용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불상 조각에 있어서 《일본서기》 흠명천황 13년조, 민달천황 8년조, 추고천황 26년조·31년조를 보면 백제와 신라가 불상을 보냈으며 백제가 造佛工을 파견하였다고 하므로 불상 조각에 있어 삼국의 영향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은 실제 오늘날 남아있는 일본의 불상들을 보면 명백해 진다. 즉 법륜사 금당의 석가삼존불상은 鞍部島(止利)가 조성한 것이라 하는데 이 鞍部止利는 백제계 사람인 多須那의 아들이라고 하니 그는 백제의 조각가임을 알 수 있다.³⁾ 그리고 현재 법륜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百濟觀音像’은 그 명칭이 알려주는 바와 같이 백제인이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고 부여의 軍守里寺址에서 출토된 金銅菩薩立像은 법륜사 夢殿의 목조관음과 같은 계통이라 함에 주목된다.⁴⁾ 飛鳥寺의 금동대불은 높이 2.7m의 큰 작품으로 양쪽 눈 주위에는 아직도 鍍金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 불상은 법륜사 석가삼존불상보다 17년이 앞서고 奈良市 東大寺의 大佛보다 150년이 앞서는 일본 最古의 金銅佛으로 606년에 역시 止利佛師가 조성하였다고 한다. 불상의 相好에서 양쪽 눈이 杏仁形이고 法衣가 두툽한 점 등은 이 불상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인 것이다. 이렇듯 행인형의 양쪽 눈과 두툽한 법의는 백제 불상의 특징의 하나로서 瑞山 磨崖三尊佛像이나 군수리 石造如來坐像 등에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 대불의 조성은 우리 조상들에 의하여졌음을 쉽게 알 수 있다.

長野市の 《善光寺緣起》에 의하면 백제로부터 ‘請來佛三尊’이 모셔져 있어 일본 最古의 불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오늘에까지 秘佛로 모셔져 있다. 다만 鎌倉시대의 模造像으로 금동삼존불이 알려져 있어 善光寺의 백제삼존불상의 형태를 짐작할 뿐이다. 선광사의 경우는 백제로부터 모셔온 불상이라 칭하지만 이밖에 神奈川縣 圓覺寺 金銅三尊佛像을 비롯하여 각 사찰의 삼존

3) 金錫亨, 《古代朝日關係史》(勁草書房, 1969), 451~452쪽.

4) 黃壽永, 〈百濟의 美術文化〉(《韓國思想》 9, 1968), 50쪽.

불상들은 三尊이라는 意匠과 그 양식이 한국의 영향인 것이다. 한국에 있어서 금동삼존불상은 삼국시대 각국에서 많이 조성되어 辛卯銘金銅三尊佛像, 癸未銘金銅三尊佛像, 皇龍寺丈六三尊佛像(현재는 燒失)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6세기때 조성된 것으로 이러한 조형의 양식이 일본으로 건너가 7세기에 이르러 일본에서의 三尊佛 조성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石佛에 있어서도 奈良縣 櫻井市 忍坂(오쓰사카)의 石位寺 三尊石佛은 主尊佛을 중심으로 좌·우에 합장한 보살입상을 배치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주존불의 앉은 자세로 倚像인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상의 형태는 7세기 초반인 고신라시대(선덕여왕대로 추정함)에 조성한 慶州 三花嶺 三尊石佛의 本尊인 彌勒如來倚像에서 볼 수 있다. 이 본존에서 가장 큰 특징을 자세에서 볼 수 있는데 直立 또는 結跏趺坐形이 아니라 坐形이면서도 方座에 걸터앉아 양쪽 다리를 바로 내려 이른바 倚坐形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일본의 석위사 삼존석불은 본존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이 석불에 대해서는 일본 학자들 사이에 白鳳時代 혹은 奈良前期의 조성으로 추정하고 있다. 백봉시대나 奈良전기는 7세기 후반부터 8세기초에 걸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많은 문물이 일본으로 전해진 이후여서 이미 고신라의 선덕여왕대에 조성된 경주 삼화령 삼존석불 본존상의 양식과 作風이 일본으로 전해져 석위사 삼존불상과 같은 불상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에도 한국에서는 石造倚像이 조성되어 충청북도 보은군의 法住寺 磨崖如來倚像과 같은 유례를 보이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러한 양식이 계승되지 않고 있어 기상이 그 당시의 영향으로 조성되었음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일본에서 마애석불로 이름난 것은 頭塔藥師三尊石佛(奈良市 高畑町), 大谷寺 磨崖阿彌陀三尊佛像(栃木縣 宇都宮市 大谷町) 등으로 이들은 奈良시대 후기인 8세기 후반부터 平安시대 말기인 12세기 중반에 이르는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에 있어서는 이보다도 훨씬 앞선 때에 마애삼존불이 조성되어 백제에서는 泰安 磨崖三尊佛像과 서산 마애삼존불상이 조성되었고 신라에서는 경주 남산의 삼화령 삼존석불 외에도 榮州 可興里 磨崖三尊佛像이 조성되었음을 볼 수 있으니, 이렇듯 한국에서의 마애불상 조성과 삼존불상의 양식이 일본에 전해져 일본에서도 삼존불상의 마애불 조성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오늘날 일본 국내에는 한국의 불상이 많이 전해져 있다. 전국의 국·공·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에 전해지고 있는 한국 불상을 비롯하여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불상들, 사찰과 神社 등에서 예배의 主尊佛로 봉안하고 있는 불상 등 실로 그 수효는 상당하리라 생각된다.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일본 학자들과의 대화에서 한국에 남아있는 금동불상보다 일본에 소장되어 있는 금동불상이 더 많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어떤 학자는 1,000점은 넘으리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1982년도에 奈良의 大和文華館에서 한국 불상 특별전을 개최하였으며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경국립박물관이나 奈良국립박물관에서도 불교 미술전을 개최할 때는 반드시 한국의 각종 불상을 전시하여 한국인들의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렇듯 많은 한국 고대의 불상이 일본에 전해져 있다는 것은 일찍부터 한국으로부터 불상이 전해져서 일본의 고대불상 조각에 크나큰 영향을 주었음을 짐작케 하는 동시에 일본 기록에 보이듯이 불교 수용후 삼국으로부터 많은 불상을 일본으로 모셔왔다는 내용을 실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국 불상이 일본에 많다는 것은 對馬島에서 한국 불상을 조사한 수효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으니 1989년도까지 122점의 한국 불상이 조사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⁵⁾ 한국 불상이 일본으로 전해져 고대 일본 불상 조각의 모범이 되었음은 앞서서도 언급하였는바, 이러한 생각에서 일본의 국보 제1호로 지정 보존하고 있는 京都 廣隆寺의 木造半跏思惟像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불상에 대하여 田村圓登씨는 《日本史의 수수께끼와 발견》에서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四天王寺의 金堂에 안치되어 있는 半跏像은 聖德太子를 戀慕渴仰해서 만들어졌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반가상은 難波吉士(나니와키시)의 私寺 시대부터 안치되어 온것 같다. 또한 太奏(우즈마사)의 廣隆寺의 本尊도 寶冠彌勒이라고

5) 鄭永鎬, 〈日本對馬島の 韓國金銅佛像研究試論〉(《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記念論叢 美術史學篇》, 一志社, 1987).

——, 〈日本對馬島の 韓國佛像新例〉(《歷史教育論集》13·14합집, 歷史教育學會, 1990).

불리는 반가상이었다. 廣隆寺와 四天王寺, 즉 難波吉士씨의 절들은 다같이 新羅系 씨족의 소유 사찰이며 그리고 麿戸王(우마도노미코)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지적했지만 어쨌든 간에 반가상은 聖德太子 신앙의 상징이었다. 반가상은 본래는 悉達太子像이었다.

그런데 근년에 광릉사의 목조반가사유상이 고신라에서 조성하여 일본으로 보내졌다는 사실이 일본학자 毛利久씨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밝혀졌다.

飛鳥時代前期: 이 시대에 신라로부터 일본에 수시로 불상이 전해졌는데 현존하는 것 중의 하나로 廣隆寺의 木造彌勒菩薩半跏像을 들고 있다. 이 불상은 광릉사에 전해 내려오는 내력으로 미루어 推古天皇 31년(623)에 아마도 聖德太子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신라 궁실로부터 헌상되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양식상으로는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보살반가상을 닮은 고신라 독특한 수법으로 纖麗優美한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그런데 광릉사 불상이 만들어진 推古天皇 31년은 法隆寺 釋迦三尊像을 止利씨가 조성한 연대이기도 하다. 兩 불상이 양식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은 명확한 사실이나 이러한 兩 불상이 거의 같은 시기에 並存했던 實例를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⁶⁾

한편 이 광릉사 목조반가사유상이 고신라의 조성물임을 고증한 논문은 毛利씨가 이미 1977년에 발표한바 있다.⁷⁾ 모리씨는 여러 관계문헌 연구와 특히 조형 상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을 비교 고찰하였는바, 실제 이 兩 반가사유상을 비교하면 각부 양식에 있어서 너무나도 같은 점이 많아 1975년도에 일본에서 열린 한국미술 5,000年展 전시회에서 양 불상을 兄弟佛이라고 까지 칭하기도 하였었다.

이 양 불상이 같은 양식을 취하고 있음은 여러 부문에서 지적할 수 있으니 첫째, 寶冠 양식에서 매우 간소하여 이른바 三山冠을 이루고 있는 점이다. 둘째, 天衣에 있어서 上半裸身임이 또한 같은 점이다. 셋째, 台座가 圓形인 점과 그곳에 흘러내린 衣文의 표현이 보다 간략화되고 사실적이며 입체적으로 표현된 점이 너무나도 같다. 넷째, 상호의 細部와 三道, 그리고 兩手

6) 毛利久, 《佛像東漸(朝鮮と日本の古代彫刻)》(京都, 法藏館, 1983).

7) 毛利久, 〈廣隆寺寶冠彌勒像と新羅樣式の流入〉(《白初洪淳和博士還曆記念史學論叢》, 1977).

指的 표현 등에서도 같음을 볼 수 있고 상호에 나타난 미소도 똑같이 평화스러움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비교 고찰은 필자뿐만 아니라 선학들도 이미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던 바인데, 오히려 일본 학자에 의하여 이 광릉사 목조반가사유상이 고신라의 所作으로서 일본으로 모셔갔다는 論著가 먼저 발표되었으니 한국측 으로서는 다시 언급한 필요조차 없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당시 일본 학계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저항과 물의가 있었으나 毛利씨의 치밀한 조사 연구에 따른 정확한 논리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니 오늘의 일본 학계는 모리씨의 주장을 수용하여 정설로 통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반가사유상이 일본으로 전해진 것 가운데 백제의 것으로 최근에 새로이 밝혀진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對馬島 美津島町 久須保의 淨林寺 所藏 金銅半跏像인데 이 불상은 1984년 2월에 새로이 발견 조사된 것이다.⁸⁾

둘째, 長野縣 北安曇郡 松川村의 觀松院 소장 金銅半跏像인데 이 불상은 오랫동안 秘佛로 모셔져 있어 공개되지 않다가 久野健씨(前 東京國立文化財研究所 情報資料部長)에 의하여 조사 발표됨으로써 학계에 알려져 여러 학자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⁹⁾

셋째, 松田光氏 소장 金銅半跏思惟像이다(神奈川縣 川崎市 麻生區 王禪寺 光ヶ谷 거주). 이 불상은 오랜 동안 三重縣 一志郡의 積善寺에서 수장하고 있었던 것을 松田씨의 선친인 故 松田福一郎씨가 물려받았다고 한다. 이 불상에 대해서는 久野씨의 소개에 의하여 1987년과 1988년 두 차례 조사한 바 있어 그 출처를 자세하게 알 수 있었다.¹⁰⁾

이밖에 일본에 전하는 고대의 한국 금동불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 神社나 사찰에 秘佛로 모시어 엄숙하게 간직되었던 불상이 근년에 조사되어 한국 조성의 금동불로 밝혀진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宮城縣 船形

8) 鄭永鎬, 〈對馬島發見百濟金銅半跏像〉(《百濟研究》15, 忠南大 百濟研究所, 1984).

9) 久野 健, 〈中部地方の古代銅像〉(《美術研究》291, 東京國立文化財研究所內 美術研究所, 1974).

10) 鄭永鎬, 〈日本松田光氏所藏金銅半跏思惟像—百濟金銅半跏思惟像 渡日の一例—〉(《蕉雨黃壽永博士古稀記念美術史學論叢》, 1988).

山神社의 金銅菩薩立像, 新潟縣 關山神社의 金銅菩薩立像 등을 들수 있다. 久野씨가 그의 저서에서 한국으로부터의 渡來佛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신을 밝힌바 있으니 이 兩 불상은 분명히 한국에서 조성된 불상인 것이다.

일본에 도래한 고조선의 불상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중 하나는 한국으로부터 北九州로 들어와 瀬戸内海를 통해 大和지방에 운반된 가장 일반적인 경로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한국에서 일본해를 건너 조류를 타고 중부지방인 일본해 연안에 상륙한 경우이다. 오늘날 新潟縣 關山神社의 主尊佛로 되어있는 금동보살입상이나 長野縣 觀松院의 금동보살만가상 등은 후자의 例이며 장야현 善光寺의 本尊像 등은 전자의 예이다. 船形神社의 보살입상도 이 중의 어느 경로에 의하여 일본에 도래한 것이 아닐까 추정한다(《渡來佛の旅》, 日本經濟新聞社, 1981).

이러한 구야씨의 주장은 현재 학계에서 통설화되어 있는데 한가지 아쉬운 것은 이들 보살상이 삼국시대에 조성된 것은 분명하나 삼국의 고구려·백제·신라 등 그 국적에 대하여 언급이 없는 점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남길 수밖에 없거니와 현재로는 이들 불상이 한국의 고대 불상이라는 점이 주목되며 이렇게 많은 삼국시대의 불상이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고대 불상 조각의 모범이 되었을 것임은 당연한 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은 대마도 정립사 백제 금동반가사유상의 경우 일본의 《善隣國寶記》上卷을 보면 〈海外國記〉의 내용을 소개하되 天智天皇 3년(664) 4월에 백제의 佐平 禰軍 등 백여 명이 대마도에 가서 많은 문물을 전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이전부터 백제로부터 대마도에 간 것은 일본 본토를 가기 위하여 그 길목인 대마도에 수없이 들렀던 것이니 이러한 사실이 《일본서기》에 수없이 보이며 추측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백제의 금동불상이 대마도에 전해졌음은 당연한 일로 생각된다. 다른 불상들도 그 전수경로가 분명할 것인바 결국(요시노가리)은 모두 일본에 전달되어 일본 불상조각의 표본들이 되었으며 오늘날 각처의 主尊佛로 숭앙받고 있는 것이다.

繪畫面에 있어서도 일본 회화의 원류는 삼국 회화에서 찾아야 할 것이며 삼국 회화의 영향은 곧 일본 회화 성립의 주역이었던 것이다. 《일본서기》崇峻天皇 원년조(588)에 백제에서 畫工 白加가 파견된 사실이 보이고 추고천황

18년조(610)에는 3월에 고구려의 승려曇徴이 五經을 비롯하여 彩色과 紙墨을 전해준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일본에 있어서 회화 기술과 그림을 그리는 데 필요한 재료가 삼국으로부터 전수되었던 것이다. 삼국의 畫師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많은 활동을 전개하였을 것인 바, 백제의 阿佐太子는 성덕태자의 모습을 그렸다고 하며 담징은 법륜사 금당의 벽화를 그렸다는 이야기가 향간에 전해지고 있다. 현재의 법륜사 금당 벽화는 근년에 새로이 그린 것이나 본래의 벽화는 담징의 그림으로 전한다는 것이다. 금당 벽화가 화재에 그슬리어 전체적으로 훼손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몇 편이 수습되어 본래의 畫風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수습된 몇 조각의 그림에서 고구려의 화풍을 알 수 있어 고대 일본 회화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어 있다. 그리고 飛鳥時代 말기로 추정되는 中宮寺의 《天壽國曼荼羅繡帳》의 畫本 집필자 중에는 고구려 사람인 加世湓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 당시 고구려 화사의 활동을 짐작할 수 있다.¹¹⁾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한 비조의 高松塚고분 벽화는 고구려 계통의 화가에 의하여 이루어 졌으니, 1972년 이 벽화의 발견 조사 당시부터 일본 학자들에 의하여 연구되어 이와 같은 결과가 학계에 알려졌던 것이다.

공예면에 있어서는 공예의 부문이 범위가 넓어 모든 분야를 전부 살필 수 없으므로 불교 전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불교적인 공예를 중심으로 한다. 《일본서기》崇峻天皇 원년조(588)에 백제에서 鑪盤博士 將德白昧淳과 瓦博士 麻奈文奴를 비롯하여 陽貴文, 倭貴文, 昔麻帝彌 등이 파견된 사실이 보인다. 鑪盤은 露盤이라고도 하였으며 불탑에 있어서 相輪部の 基台를 말하는데 여기에 노반은 상륜 전체를 일컫는다. 당시 불탑의 상륜부란 불탑을 장식하는 부분으로서 박사는 鑄造 기술자 즉 鑪盤師인데 이때 백제에서 건너간 白昧淳은 당시 백제의 官位 16階 가운데 제7에 해당하여 대단한 기술자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불탑의 중요한 부분인 상륜부를 제작하기 위하여 백제로부터 능숙한 노반박사를 초빙하였을 것이다. 瓦博士는 造瓦師라하여 당시 寺院의 기와뿐만 아니라 궁전 등 중요한 건물의 지붕기와를 만드는 박사였는데

11) 末永雅雄・井上光貞 편, 〈大陸裝飾古墳との比較考察〉(《高松塚壁畫古墳》, 1972), 67~140쪽.

이렇듯 금속공예와 土陶공예의 기술관이 직접 일본으로 건너갔으니 당시의 일본 공예는 삼국의 기술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것이다. 비조사를 비롯하여 광릉사·법릉사·北野廢寺址 등에서는 백제의 막새기와와 똑같은 것이 나왔고, 때로는 고구려 계통의 막새기와가 함께 출토되기도 하여 삼국에 의한 기술 전수의 현장을 확인할 수도 있다.

사찰에서 가장 성스러운 행사는 사월 초파일 석가탄신일의 灌佛 혹은 灌頂이다. 관불이란 부처님의 머리에 물을 정중히 적시는 작업으로 관정이라고도 하는데 이 행사는 본래 인도의 국왕 즉위나 태자를 책립할 때 행하여진 의식으로서 四大海의 물을 머리 위에 끼얹어 祝意를 표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관정을 행하는 방을 灌室이라 하며 관정을 위하여 특설된 도량을 ‘관정도량’이라 하는데 이러한 행사가 곧 석가탄신일에 그 탄생하신 모습에 향수를 정중히 뿌리는 관불의 행사가 된 것이다.

한국에서도 일찍부터 관불의 행사가 있었으니 백제에서 일본으로 灌佛器를 전해준 사실이 일본측 기록에 보이고 있다. 즉 《元興寺伽藍緣起并流記資材帳》에 의하면 “... 治天下七年歲次 戊午十二月度來 百濟國聖明王時 太子像并灌佛之器一具及說佛起書卷一篋度而言...”이라하여 灌佛器一具가 백제의 聖王때 일본에 건너간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佛教語大辭典》¹²⁾에 의하면 관불의 행사가 일본에서 최초로 행하여진 것이 추고천황 14년(606)에 원흥사에서 행해진 관불 의식이였다고 하였는데 혹시 당시에 사용하던 灌佛器가 성왕시에 백제에서 보낸 바로 그 관불기가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물론 백제의 성왕대와 일본의 추고천황대는 약 반세기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설사 백제로부터 전해진 바로 그 관불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관불기를 모범으로 하여 만들어진 관불기를 사용하였을 것이니 결국 그 연원은 한국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는 고대의 관불기가 전해지는 것이 없으며 최근에 고려시대의 조성으로 추정되는 金銅灌佛盤이 조사되어 학계에 보고되었을 뿐이다.¹³⁾ 한국에 없는 문화재가 일본에는 많이

12) 中村元, 《佛教語大辭典》(東京書籍株式會社, 1975)

13) 鄭永鎬, 〈金銅佛器의 新例—高麗金銅灌佛盤의 推定—〉(崔永禧先生華甲紀念《韓國史學論叢》, 探究堂, 1987).

전해져 있다. 내용도 다채롭다. 그러나 그들의 연원은 모두 한국인 것이다.

‘삼국문화의 일본전파’를 생각할 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滋賀縣 石搭寺의 삼층석탑이다. 석탑사는 옛 식의 석탑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므로 붙여진 寺名인데 여기에는 백제식의 3층석탑이 건립되어 있으며 奈良의 般若寺十三重石塔, 平等院十三重石塔 등의 전형적인 일본식 석탑과는 전혀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蒲生郡 蒲生町の 한적한 곳에 석탑사가 있으며 높직한 台地위에 3층석탑을 건립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日本の石塔》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¹⁴⁾

안정감이 있어 大陸의인 감을 주는 탑이다. 天智天皇 8년(669)에 백제의 歸化人 7백여 인이 蒲生郡에 이주하였는데 이 탑은 그 사람들이 여기에 佛寺를 造營하고 母國의 양식에 의하여 건립한 것이다. 그러나 공양탑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伽藍經營의 塔으로 건립한 것이다. 奈良時代前期의 것으로 보인다. 이 탑은 聖德太子가 건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寬弘 3년(1006)에 地中에서 古石塔 一基를 발견하였으니 寺刹은 이 古塔에 의하여 石塔寺라는 寺名이 붙게 된 것이다. 이 탑은 俗傳에 阿育王所造 八萬四千塔中の 하나라고 전해져 《源平盛衰記》에도 이미 이러한 기사가 있다.

이 석탑은 一見하여 백제시대의 석탑임을 곧 알 수 있다. 넓직한 塔區를 마련하고 地台石위에 塔身部를 받고 있는데 각층의 광대한 屋蓋石이나 탑신 석의 구성으로 보아 부여의 定林寺 五層石塔과 흡사함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양식의 석탑은 일본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바 역시 백제인에 의하여 건립되었다고 하겠다.

〈鄭永鎬〉

14) 若杉 慧, 《日本の石塔》(東京, 木耳社, 1970)에서 일본 最古의 석탑이라고 初頭に 소개하고 있다.

찾아보기

[ㄱ]

- 가락국 구간 駕洛國 九干 160
 《가락국기》 《駕洛國記》 87~89, 154
 가락동 고분 可樂洞 古墳 336, 338, 344, 432
 가람배치 伽藍配置 268, 270
 가릉빈가문 迦陵頻伽文 267
 가림성 加林城 313
 가면극 假面劇 381
 가면기 假面伎 377
 가무배송도 歌舞俳送圖 185
 가반 加盤 260
 가반 柯半 445
 가서사 嘉栖寺 82
 가소 加召 318
 가실왕 嘉實王 373
 가악계 노래 歌樂系 노래 159, 164~166
 가야토기 伽倻土器 428
 가족합장 家族合葬 332
 가차자 假借字 136
 가척 筴尺 376
 가탑리 금동불상 佳塔里 金銅佛像 233
 각 角 382
 각가 覺哥 471
 각궁 角弓 387
 각덕 覺德 75
 각문 刻文 264
 각배 角杯 258, 261
 각저총 角抵塚 7, 183, 262, 333, 390
 각종 覺從 65
 각훈 覺訓 70
- 감 龕 331
 감신총 龕神塚 333
 갑석 甲石 275
 갑인년 왕연손명광배 甲寅年 王延孫銘
 光背 228
 갑주 甲冑 254
 강국 康國(Samarkand) 378
 강례박사 講禮博士 120
 강상 崗上 329
 강서대묘 江西大墓 191, 333, 334
 강서중묘 江西中墓 191, 334
 강소성 구용유적 江蘇省 句容遺蹟 338
 강수 強首 121
 강호 패총 江湖 貝塚 463
 개토제 開土祭 30
 개황 開皇 377
 거덕사 舉德寺 89
 거도진 居道傳 392
 거문고 367~369, 372, 375, 380
 거성 居城 318
 〈거열〉 〈居烈〉 167, 374
 거칠부 居柒夫 4, 56, 129, 130
 건립 巾幘 434, 438, 441
 건길지 韃吉支 140, 147
 건지벽화법[췌코법] 乾地壁畫法 176
 건흥사 建興寺 67
 건흥 5년 병진명 광배 建興 五年 丙辰
 銘 光背 228
 절사표 乞師表 3
 격의불교 格義佛教 51, 59
 겸익 謙益 3, 58, 60, 474
 경가(거울걸이) 鏡架 255
 경당 局堂 114, 116, 386
 경질청회색토기 硬質靑灰色土器 263
 경질토기 硬質土器 265, 410, 428

- 경관 經板 255
 계고 階古 9, 167, 374
 계덕 季德 380
 《계림잡전》 《鷄林雜傳》 68, 69
 계미명 금동삼존불상 癸未銘金銅三尊佛像 260, 482
 계왕 契王 347
 계유명 아미타불삼존석상 癸酉銘阿彌陀佛三尊石像 371
 계율종 戒律宗 3
 계자가 稽子歌 9
 계족간산성 鷄足間山城 309
 계통수도 系統樹圖 150
 계학 戒學 475
 계현성 鷄峴城 309
 고 袴 433, 435, 442, 445
 고각 鼓角 9
 고구려어 高句麗語 138, 144
 고구려 지도 高句麗地圖 411
 고구려척 高句麗尺 404
 고구려춤 高句麗舞 378
 고국원왕릉 故國原王陵 333
 고덕왕보손 固德王保孫 412
 고득상 高得相 70
 고려기 高麗伎 377
 〈고려노사방〉 〈高麗老師方〉 410
 고려악 高麗樂 377, 382
 고려적(고마부예) 高麗笛 380
 고력묘자촌 高力墓子村 327, 328, 330
 고려 고아동 벽화분 高靈 古衙洞 壁畫墳 204, 362
 고려 본관동 고분군 高靈 本館洞 古墳群 363
 고려 지산동 32호분 高靈 池山洞 32號墳 257
 고려 지산동 44호분 高靈 池山洞 44號墳 359, 361
 고려 출토 금관 高靈 出土 金冠 257
 고마척[고려척] 高麗尺 404
 고배 高杯 258, 266
 고분시대 古墳時代 464
 《고사기》 《古事記》 468
 고성 무기산고분 固城 舞妓山古墳 363
 고송총 高松塚 473, 487
 고이산성 高爾山城 303
 고이왕 古弼王 118
 고임천정 단실묘 고임天井 單室墓 332
 고충 高聰 473
 고흥 高興 4, 119
 곡예 曲藝 392
 곡옥 曲玉 353
 곡옥 장식모 曲玉 裝飾帽 255
 곧 禪 443
 골호 骨壺 343
 〈공무도하가〉 〈公無渡河歌〉 156, 157
 공양구 供養具 254
 공예의장 工藝意匠 262
 공장 工匠 119
 공주산성 公州山城 291
 공주 송산리 고분군 公州 宋山里 古墳群 199, 346, 347~349, 472
 공주 의당면 송정리 출토 보살입상 公州 儀堂面 松亭里 出土 菩薩立像 247
 공후 筥篋 371, 379, 380
 과대 鈐帶 447
 괘실 槨室 327
 관대 棺臺 331
 관록 觀勒 57, 67, 412, 414, 473
 관모 冠帽 433, 434, 438, 446
 《관무량수경》 《觀無量壽經》 61
 관불 灌佛 488
 《관불삼매해경》 《觀佛三昧海經》 62
 관산신사 금동보살입상 關山神社 金銅菩薩立像 486
 관송원소장 금동반가상 觀松院所藏 金銅半跏像 485
 관식 冠飾 254
 관악기 管樂器 369, 372, 380, 382
 관장식 棺裝飾 255
 관정 灌頂 488

- 광개토대왕릉 廣開土大王陵 329, 333, 340
 〈광개토대왕릉비〉 〈廣開土大王陵碑〉 116, 117, 125, 137, 206, 298
 광릉사 廣隆寺 484, 488
 광릉사 목조반가사유상 廣隆寺 木造半跏思惟像 483~485
 광법사 光法師 82
 광주 명화동 고분 光州 明花洞 古墳 363, 364
 광주 월계동 고분 光州 月桂洞 古墳 363
 교동 고분 校洞 古墳 205 353
 구 裘 436
 구갑문 龜甲文 267
 구마라십 鳩摩羅什 51
 구부기 九部伎 371, 378
 구부악 九部樂 378
 《구삼국사》 《舊三國史》 50
 구자기 龜茲伎 377
 〈구지가〉 〈龜旨歌〉 154, 157, 161, 162, 165
 구태묘 仇台廟 24
 구형호 球形壺 343
 구황리 사리외함 九黃里 舍利外函 258
 국기 國伎 377
 국내성 國內城 284, 297
 국보 제78호 금동반가사유상 國寶 第78號 金銅半跏思惟像 246
 국보 제83호 반가사유상 國寶 第83號 半跏思惟像 246
 《국사》 《國史》 56, 129
 국사 國社 20
 국악 國樂 365
 국원 國原 374
 국조묘 國祖廟 33
 국중대회 國中大會 16
 국통 國統 2
 군 裙 435
 군무 群舞 384
 군수리사지 軍守里寺址 274, 277, 343, 480
 군수리 석조여래좌상 軍守里 石造如來坐像 481
 군악 郡樂 166
 군집(다)분 群集(多)墳 351
 군창지 軍倉址 312
 군통 郡統 2
 군후 簞篋 369, 372, 380, 381
 굴광판축 掘塋版築 274
 궁고 窮袴 433
 궁남지 宮南池 290, 311
 궁륭상천정 穹窿狀天井 331, 355, 356, 362
 궁륭식 穹窿式 183, 332
 궁륭천정단실묘 穹窿天井單室墓 332
 권근 權近 400
 권족 圈足 259
 귀면기와(와전) 鬼面기와(瓦塼) 264, 267
 귀면문 鬼面文 267
 귀산 貴山 3
 귀틀집 458
 규암리 백제 보살상 窺岩里 百濟 菩薩像 234, 247, 251
 근초고왕 近肖古王 119, 468, 472
 금강사지 金剛寺址 54, 274, 277
 금강산 金剛山 287
 《금강삼매경》 《金剛三昧經》 86
 금강수계 錦江水系 338
 금관 金冠 254, 257
 금관국 金官國 356
 금관총 金冠塚 8, 257, 258, 261, 351, 353
 금동광배편 金銅光背片 259
 금동불입상 金銅佛立像 225
 금동용봉봉래산향로 金銅龍鳳逢萊山香爐 65, 99, 259, 371, 418
 금동장식금구 金銅裝飾金具 259
 금동제대금구 金銅製帶金具 257

금동제 투조장식품 金銅製 透彫裝飾品 256
 금동투조판불 金銅透彫板佛 257
 금동합 金銅盒 258
 금령총 金鈴塚 257, 351, 353
 금모장식 金帽裝飾 255
 금성 金城 266, 288, 314
 금속기술 金屬技術 405, 406, 427, 428
 금속제 기명(그릇) 金屬製器皿 258
 금제 보검 金製 寶劍 352
 금제 완 金製 碗 258, 260
 금척 琴尺 376
 금화 金花 255
 금전(쿤텐)유적 汲田遺蹟 465
 기단계단식 광적석총 基壇階段式 槲積石塚 328
 기단계단식 석실적석총 基壇階段式 石室積石塚 328
 기단봉토석실분 基壇封土石室墳 332
 기단식 광적석총 基壇式 槲積石塚 329
 기단식 봉토분 基壇式 封土墳 331
 기단식 석광적석총 基壇式 石槲積石塚 340
 기린 麒麟 185, 267
 기마인물형 토기 騎馬人物形 土器 218
 기사 騎射 386
 기악(기가쿠) 伎樂 381
 기악곡 器樂曲 375
 기악천 伎樂天 187
 기와 264, 266, 420, 428
 기우제 祈雨祭 266
 기자 箕子 112
 길림성 유수현 노하심 유적 吉林省 榆樹縣 老河深 遺蹟 335
 길상어 吉祥語 261
 길쌈놀이 161
 길야리(요시노가리)유적 吉野ヶ里遺蹟 466, 470
 길장 吉藏 52, 54
 김대문 金大問 102, 117

김무 金武 425
 김부식 金富軾 4, 49
 김유신 金庾信 76
 김인문 金仁問 101, 121

[ㄴ]

나성 羅城 309
 나십사 羅什師 52
 나을 奈乙 32, 33
 나주 반남면 신촌리 6호분 羅州 潘南面 新村里 6號墳 363
 낙랑군 樂浪郡 113
 〈난랑비서〉 〈鸞郎碑序〉 103
 난생설 卵生說 93
 남고루 南古壘 288
 남두육성 南斗六星 191
 남방식 지석묘 南方式 支石墓 465
 남산배동삼존불 南山拜洞三尊佛 239
 남산 신성비 南山 新城碑 9, 211, 318
 남정리 119호분 南井里 119號墳 345
 남조미술 南朝美術 192
 남조음악 南朝音樂 372
 남혈사 南穴寺 61
 남석제 삼존불입상 蠟石製 三尊佛立像 234
 내관 화문 內冠 花文 257
 내리 1호분 內里 1號墳 191
 내림 奈林 40
 내원성 來遠城 372, 376
 〈내지〉 〈內知〉 166, 375
 내지성주 사택지적비명 奈祇城主 砂宅 智積碑銘 8
 노대 爐臺 259
 노반 露盤 276
 노반박사 鑪盤博士 419, 479, 487
 노반사 鑪盤師 487
 노철산 老鐵山 329
 녹각형 입식 鹿角形 立飾 353
 녹량 鹿梁 54

녹심신 鹿深臣 66
《논어》 《論語》 113
눅그릇 427
농경문 農耕文 173
농환 弄丸 394
누각박사 漏刻博士 424
누금세공 鍍金細工 255, 256, 353
눌제 訥堤 448
능성 陵城 309
능형문 菱形文 257

[ㄷ]

다곽식 多槨式 351
다뉴세문경 多紐細文鏡 215
다리 多利 257
다수나 多須那 481
다인 多仁 374
다호리 고분 茶戶里 古墳 205, 358
단갑 短甲 344
단곽 單槨 351
단군사(신)화 檀君史(神)話 92, 109
단궁 檀弓 387
단금(타출) 鍛金(打出) 256
단독분 單獨墳 351
단둥 丹東 330
단밀 丹密 375
단석산 斷石山 245
단석산 마애석불군 斷石山 磨崖石佛群 6, 235
단석산 신선사 斷石山 神仙寺 236
단실묘 單室墓 332
단양 적성비 丹陽 赤城碑 9, 130, 212
단옹식 單甕式 342
단완식 單碗式 343
단장 單葬 336
단장 설(혀) 短長 舌 269
단조기법 鍛造技法 254, 261, 428
단층기단 單層基壇 275
단판 單瓣 267

단호식(구형신) 單壺式(球形身) 343
달기 達己 374
달성 達城 320
담시 曇始 49~51
담옥 曇旭 60
담징 曇徵 55
담천 曇遷 53
대고력묘자 고분군 43호 大高力墓子 古墳群 43號 329
대고력묘자촌 大高力墓子村 327, 330
대곡사 마애아미타삼존불상 大谷寺 磨崖阿彌陀三尊佛像 482
대구 내당동 51호분 大邱 內唐洞 51號墳 360
대구 불로동 고분(해안면 1호분) 大邱不老洞 古墳(解顔面 1號墳) 361
대금무 碓琴舞 385
대덕 對德 380
《대동운부군옥》 《大東韻府群玉》 169
대륜 윤곽 帶輪 輪廓 257
대사 大舍 376
대상묘 臺狀墓 364
대성동 대형목곽묘 大成洞 大形木槨墓 359
대성산성 大城山城 289, 299, 300
대승교학 大乘敎學 52
대악 碓樂 9, 375
대악감 大樂監 376
대안 大安 86
대안사 大安寺 55
대업 大業 378
대제 大堤 448
대통 大通 312
대통사 大通寺 61, 474
대관 사천왕사 大阪 四天王寺 480
대흥선사 大興善寺 83
덕래 德來 410
덕만공주 德曼公主 202
덕복 德福 424
〈덕사내〉 〈德思內〉 167, 375

- 덕산리 2호분 德山里 2號墳 363
 덕적 德積 476, 480
 덕흥리 고분 德興里 古墳 176, 220, 333
 덧널무덤(목곽묘) 木槨墓 183
 덩이쇠 418
 도가사상 道家思想 472
 도금 鍍金 254, 256
 도금필포 桃及簞簟 9
 도기 陶器 254, 263
 《도덕경》 《道德經》 90
 도등 道登 55
 도림 道琳 55, 59
 도립 倒立 394
 도무 蹈舞 383
 도불회통 道佛會通 3
 도선 道宣 84
 〈도솔가〉 〈兜率歌〉 9, 158~160, 164, 165
 도엄법사 道嚴法師 67
 도연 陶硯 265
 도옹식 倒甕式 343
 도자공예 陶磁工藝 254, 263
 도장 道藏 476
 도중사 道中寺 77
 도징 道澄 476
 도침 道琛 65
 도피피리 桃皮簞簟 378
 도현 道顯 55
 도홍경 陶弘景 407
 독무 獨舞 384
 돌거푸집 398, 399
 돌석 垓石 458
 〈동경〉 〈東京〉 166
 동경 銅鏡 254, 261
 《동경잡기》 《東京雜記》 314
 《동국이상국집》 《東國李相國集》 16
 《동국통감》 《東國通鑑》 112
 동남리사지 東南里寺址 277
 동대사 東大寺 260, 381
 동맹 東盟 16, 153, 155, 366
 동명성왕신화 東明聖王神話 110
 동명왕릉 東明王陵 289
 동명왕묘 東明王廟 18
 〈동명왕편〉 〈東明王篇〉 165
 동범경 同範鏡 262
 《동사강목》 《東史綱目》 112
 동삼동 패총 東三洞 貝塚 463
 동성 東城 303
 동세 銅洗 258, 259, 261
 동수 冬壽 178, 333
 동심원문 同心圓文 187
 동옥저 東沃沮 146, 148
 동자주 童子柱 269
 동지산성 冬只山城 321
 동탁은잔 銅托銀盞 199, 259
 동판 銅板 261
 동합 銅盒 258
 두궁양식 料拱樣式 332
 두침 頭枕 267
 두탑약사삼존석불 頭塔藥師三尊石佛 482
 두향 頭向 334
 뒤꽃이 255
 득오곡 得烏谷 319
 등황 藤黃 176
 득섬불상 得 섬佛像 221
- [ㄹ]**
- 로만 글라스 배 Roman Glass 杯 263
 로만 글라스 완 Roman Glass 碗 263
- [ㄴ]**
- 마나문노 麻奈文奴 487
 마두 馬頭 318
 마라난타 摩羅難陀 1, 57, 59
 마루기와 267
 마사회도 馬射戲圖 181

마숙 馬叔 392
 마안구 馬鞍具 352
 마운령비 磨雲嶺碑 9, 212
 마제석검 磨製石劍 465
 마한 馬韓 147, 371
 마형대구 馬形帶鉤 339, 340
 마희 馬戲 392
 막고해 莫古解 98, 472
 막목(마쿠모) 莫目 380, 381
 막부업무도 幕府業務圖 181
 막새기와 266, 267
 만덕 萬德 9, 167, 374
 만아루지 挽阿樓址 307
 만일사 晩日寺 61
 말 다래 267
 맘 mam 380
 망새 429
 망제 望祭 38
 매장혈 埋葬穴 336
 매지권 買地券 3, 30, 98, 120, 349, 477
 메주 453
 면석 面石 275
 멸구빈 滅垢毗 70
 명관 明觀 74
 명문전 銘文塼 264
 명적 鳴鐃 387
 명활산성 明活山城 266, 287, 318
 명활산성작성비 明活山城作城碑 211, 318
 모두루 牟頭婁 207, 333
 모례 毛禮 68, 70, 85
 모본 模本 176
 모시박사 毛詩博士 119
 모전석 模塼石 346
 모치 毛治 410
 목곽토광묘 木槨土壙墓 349, 353
 목관토광묘 木棺土壙墓 349
 목광 木框 339, 340
 목심칠기 木心漆器 267
 목주 木州 376

목칠공예 木漆工藝 254, 267
 물골법 沒骨法 193
 몽촌토성 夢村土城 286, 305
 묘단(대) 墓壇(臺) 327
 묘사 廟社 19
 묘용옹 墓用甕 343
 묘주접객도 墓主接客圖 185
 무기단 적석총 無基壇 積石塚 328
 〈무등산〉 〈無等山〉 166, 372, 376
 무령왕릉 武寧王陵 8, 98, 199, 218, 219, 255, 347, 348, 474, 477
 무령왕릉지석 武寧王陵誌石 119, 209
 무림 武林 84
 무문전 無文塼 264
 무문토기 無文土器 466
 무악 舞樂 380
 무악도 舞樂圖 179
 무용총 舞踊塚 7, 183, 333, 368, 369, 380
 무제설 巫帝說 93
 무척 舞尺 376
 무천 舞天 153, 155, 366, 382
 무현 武絃 369
 묵호자 墨胡子 68, 69
 문강기 文康伎 377
 《문선》 《文選》 114
 문암산성 門岩山城 321
 문양전 文樣塼 267
 문현 文絃 369
 〈물계자가〉 〈勿稽子歌〉 168
 물길(말갈) 勿吉(靺鞨) 147, 148
 물혜 勿慧 374
 미륵불광사 彌勒佛光寺 60
 미륵사 彌勒寺 63, 64
 미륵사지 彌勒寺址 275, 277, 293
 미륵사지석탑 彌勒寺址石塔 6, 275
 미마지 味摩之 381
 미사흔 未斯欣 375
 미생 분구묘 彌生 墳丘墓 364
 미시랑 未尸郎 76, 77

미지악 美知樂 375
 미천왕 美川王 178
 미천왕릉 美川王陵 333
 미천왕릉 벽서 美川王陵 壁書 137
 미추왕릉 末鄒王陵 351
 민요 民謠 372, 374
 민요계 가악 民謠系 歌樂 166
 밀랍 거푸집 蜜蠟 거푸집 419

[ㅂ]

박산문 博山文 202
 박제상 朴堤上 375
 반 盤 263, 264
 반구대 盤龜臺 173, 216
 반룡사 盤龍寺 56
 반야사상 般若思想 51
 반월성 半月城 266
 반월형석도 半月形石刀 465
 반육조 半肉彫 262
 발방아 409
 발정 發正 59
 방격규구신수경 方格規矩神獸鏡 262
 방단 方壇 328
 방대형 方臺形 327, 331
 방등산 方等山 372
 방술 方術 97
 방울 254, 256
 방웅 放鷹 391
 방이동 고분 芳莢洞 古墳 363
 방제경 倣製鏡 262, 358
 방형(원형)주구묘 方形(圓形)周溝墓 339, 364
 방형석실분 方形石室墳 361
 배소 排簫 372
 배수 裴秀 411
 백가 白加 198
 백결선생 百結先生 100, 375
 백고좌(강)회 百高座(講)會 56, 82
 백록주술 白鹿呪術 161
 <백실> <白實> 166, 375
 백유경 百乳鏡 262
 백자석 白赭石 176
 백제고분 百濟古墳 334, 336
 백제금 百濟琴 380, 381
 백제금동대향로 百濟金銅大香爐 3
 백제 금속기술 百濟 金屬技術 417, 418
 《백제기》 《百濟記》 4, 127, 128
 백제 나성 百濟 羅城 259
 백제 농업기술 百濟 農業技術 415, 416
 《백제본기》 《百濟本記》 4
 《백제신집방》 《百濟新集方》 414
 《백제신찬》 《百濟新撰》 4, 127, 128
 백제악 百濟樂 166, 373, 378, 379, 381, 382
 백제어 百濟語 138, 140, 144
 백제 유리기술 百濟 琉璃技術 421
 백제음악 百濟音樂 372
 백제 의학학 百濟 醫藥學 414
 백제적(구다라부예) 百濟笛 380, 381
 백제 지리학 百濟 地理學 413
 백제창왕십삼계태세제 정해매형공주공양사리 百濟昌王十三季太歲在 丁亥妹兄公主供養舍利 260
 백제 천문학 百濟 天文學 412
 백제 토목기술 百濟 土木技術 416
 백제향로 百濟香爐 380
 백좌강회 百座講會 2
 백화모 白樺帽 446
 백희 百戲 394
 백희기악 百戲伎樂 187
 범엽 范曄 114
 범종 梵鍾 255
 범패 梵唄 79
 법금 法琴 373
 법륜사 法隆寺 55, 257, 274, 488
 법륜사 금당벽화 法隆寺 金堂壁畫 487

- 법륜사 몽진 法隆寺 夢殿 481
- 법륜사 보장전 금동봉보주보살입상 法
隆寺 寶藏殿 金銅奉寶珠菩薩立像 233
- 법륜사 어물48체불상 法隆寺 御物48體
佛像 228, 239, 253
- 법륜사 5층목탑 法隆寺 5層木塔 480
- 법명 法明 66
- 법상 法上 52
- 법상 法常 84
- 법요기 法要器 254
- 법정 法定 55
- 법지 法知 9, 167, 374
- 《법화경》 《法華經》 60, 62
- 법흥사(비조사) 法興寺(飛鳥寺) 55,
67, 475, 477, 480, 488
- 법흥왕 法興王 375
- 벽감 壁龕 349
- 벽골제 碧骨堤 448
- 벽골지 碧骨池 415, 416
- 벽귀주술 辟鬼呪術 169
- 벽사 僻邪 266
- 벽옥제 석족 壁玉製 石巖 358
- 번 弁 438
- 번진 弁辰 147, 148, 321, 367, 368, 373,
375
- 변형신수경 變形神獸鏡 262
- 변형칠유경 變形七乳鏡 262
- 변형8각고임 變形8角高임 183
- 별자리 그림 402
- 병곽 并槨 351
- 보덕 普德 56, 96
- 보문동 부부총 普門洞 夫婦塚 351,
355, 361
- 보사 步射 386
- 보살 菩薩 187
- 보상당초문 寶相唐草文 267
- 보요 步搖 255
- 보원사 普願寺 61, 225
- 보주뉴 寶珠鈕 261
- 보주형 寶珠形 260
- 복두 幘頭 445
- 복사리 伏獅里 183, 331
- 복신 福信 65
- 복판 複瓣 267
- 복합식산성 複合式山城 307, 318, 322
- 《본조고승전》 《本朝高僧傳》 67
- 봉보주보살상 奉寶珠菩薩像 253
- 봉산산성 蓬山山城 321
- 봉석석실총 封石石室塚 329
- 봉성현 鳳城縣 329
- 봉수형병 鳳首形瓶 263
- 〈봉암사지증대사적조탑비〉 〈鳳巖寺智證
大師寂照塔碑〉 49, 73
- 봉역도 封域圖 411
- 봉의4년명 鳳儀4年銘 267
- 봉토석실분 封土石室墳 175, 332
- 봉평신라비 鳳坪新羅碑 9, 25, 211
- 봉화군 몰야면 복지리출토 석조반가사유
상 奉化郡 勿野面 北枝里出土 石造
半跏思惟像 246
- 봉황대고분 鳳凰臺古墳 351
- 봉황동궁지 鳳凰洞宮址 321
- 봉황문 鳳凰文 267
- 부견 符堅 49
- 부경 桴京 455
- 부뚜막 451
- 부산 북천동 11호분 釜山 福泉洞 11號
墳 360
- 부산성 浮山城 313
- 부산성 富山城 319
- 부석장 敷石葬 336, 338, 343
- 부소산 扶蘇山 292
- 부소산사지 扶蘇山寺址 199
- 부소산성 扶蘇山城 287, 309, 311
- 부익 451
- 부여 夫餘 146, 148, 153, 366
- 부여 扶餘 268, 287, 292
- 부여 군수리 옛절터 출토 금동보살입상
夫餘 軍守里 옛절터 出土 金銅菩薩立
像 6

부여 규암면 출토 금동관세음보살입상
夫餘 窺岩面 出土 金銅觀世音菩薩立
像 6
부여 능산리 扶餘 陵山里 199, 259,
347, 362, 472
부여 능산리 고분군 扶餘 陵山里 古墳
群 346
부여씨 夫餘氏 140, 147
부여풍 扶餘豐 65
부이강(동가강) 富爾江(冬佳江) 327
부장괘 副葬櫃 352
부탄장 敷炭葬 336, 343
부판장 敷板葬 336
북 372, 382
북관산성 北關山城 303
북야폐사지 北野廢寺址 488
북위묘 北魏墓 263
북조 北朝 369, 371
북조식 석실 北朝式 石室 355
북한산비 北漢山碑 212
북한산성 北漢山城 305
북형산성 北兄山城 319
분산성 盆山城 322
분서왕 汾西王 347
분수승 焚修僧 41
분황사 芬皇寺 282
분황사 석탑 芬皇寺 石塔 6, 258, 281
불교문화 佛教文化 189
불로장생사상 不老長生思想 3
불암산성 不岩山城 305
비가악계 구비시가 非歌樂系 口碑詩歌
167, 169
비가악계 노래 非歌樂系 노래 164,
165, 167, 170
비가악계 창작시 非歌樂系 創作詩
167, 168, 171
비암사 석상 碑巖寺 石像 372
비천문 飛天文 187, 267
비파 琵琶 369, 372, 378
비파모양 청동검 琵琶模樣 青銅劍

397
〈비형랑사〉 〈鼻荊郎詞〉 169, 170
빙고전 氷庫典 430
뿔피리 382

【人】

사공 寺工 479
《사기》 《史記》 110, 113, 114
〈사내〉 〈思內〉 166
사뇌격 詞腦格 172
사도군지(이도시마군지) 糸島郡誌 466
사리감 舍利龕 311
사리장엄구 舍利莊嚴具 255
사립식 斜立式 342
사마달등 司馬達等 66
사물 思勿 374
사비 泗沘 198, 309
사비루 泗沘樓 312
사비시대 泗沘時代 309
사슴뿔형의 입식 사슴뿔形의 立飾 257
사신 四神 176
사신도 四神圖 7, 333, 346, 472
사아식 四阿式 332
사우돌출묘 四隅突出墓 328, 364
사이호 四耳壺 261, 264
사자문 獅子文 267
사자사 獅子寺 64
〈사중〉 〈祀中〉 167, 375
사직단 社稷壇 32
사찰연기설화 寺刹緣起說話 44
사천정식 석실분 斜天井式 石室墳 346
사택지적당탑비 砂宅智積堂塔碑 209
사파무 娑婆舞 383
사팔해 沙八兮 374
사희 射戲 389
산경문전 山景文傳 7, 99
산성자산성 山城子山城 257, 264
산성하묘구 M332 山城下墓區 M332
264

- 산수문전 山水文傳 199
 산수봉황문전 山水鳳凰文傳 7
 산신각 山神閣 42
 산직리산성 山直里山城 314
 살파다부 薩婆多部 53
 삼가성도 三家星圖 401
 삼각의 도반(도연) 三脚의 陶盤(陶硯) 264
 삼교등위 三敎等位 95
 삼교회통사상 三敎會通思想 3, 101
 《삼국사기》 《三國史記》 4, 49, 50, 59, 63, 65, 68, 71, 73, 90, 110, 112, 117, 128, 131, 135
 삼국악 三國樂 382
 《삼국유사》 《三國遺事》 49, 50, 54, 63, 68~71, 80, 90, 135
 삼국의 언어 三國의 言語 135, 138, 143, 144
 《삼국지》 《三國志》 109, 113, 135
 삼귀오계 三歸五戒 51
 삼근 三斤 380
 삼년산성 三年山城 320
 삼론종 三論宗 51, 52, 55, 68, 476
 삼소신사 비석(산조신자 도비이지) 三所神社 飛石 466
 삼승 三乘 51
 삼실묘 三室墓 264
 삼양동출토 금동관음보살입상 三陽洞出土 金銅觀音菩薩立像 250
 삼옹식 三甕式 342
 삼정동산성 三丁洞山城 309
 삼족배 三足杯 265
 삼존불 三尊佛 257
 삼진(미쓰)유적 三津遺蹟 465
 삼한시대 三韓時代 254
 삼현 三絃 369, 374
 삼화령 미륵삼존불상 三花嶺 彌勒三尊佛像 6, 243, 250, 482
 〈상가라도〉 〈上加羅都〉 167, 374
 상감기법 象嵌技法 254, 256
 상금서수류 祥禽瑞獸類 187
 상기물 上奇物 374
 상락관 相樂館 382
 상생신앙 上生信仰 75
 상절 上日 310
 상지상묘술 相地相墓術 200
 상태포 上台浦 469
 상형토기 象形土器 266
 생 笙 378
 생의사 生義寺 77, 243
 《서기》 《書記》 127, 348
 〈서동요〉 〈著童謠〉 9, 169, 170~171
 서량기 西涼伎 378
 서복사지 西腹寺址 277
 서봉총 瑞鳳塚 8, 257, 351, 353
 서산 마애(삼존)불 瑞山 磨崖(三尊)佛 6, 233, 240, 481
 서성 西城 303
 서수 瑞獸 197
 서역악기 西域樂器 379
 서옥 瑁屋 455
 서조문 瑞鳥文 267
 서하사 棲霞寺 52
 서혈사 西穴寺 61
 서형산성 西兄山城 319
 석각문 石刻文 140
 석곽묘 石槨墓 326, 329, 334, 337, 350, 359
 석곽옹관묘 石槨甕棺墓 337
 석궁 石弓 387
 석기 火石 器 263
 〈석남사내〉 〈石南思內〉 167, 375
 석독 釋讀 136
 석록 石綠 176
 석마제미 昔麻帝彌 487
 석상(이소노가미)신궁 石上神宮 256
 석상분 石箱墳 464
 석성산성 石城山城 313
 석실분 石室墳 326, 334, 344
 석실토돈묘 石室土墩墓 361

- 석위사 삼존석불 石位寺 三尊石佛 482
 석제부뚜막 石製부뚜막 332
 석청 石靑 176
 석촌동 고분군 石村洞 古墳群 305,
 334, 336~338, 340, 341, 363
 석탑사 石搭寺 489
 석함 石函 259
 석황 石黃 176
 선광사 善光寺 481
 선도 仙徒 3
 선도 羨道 336
 선도산 仙挑山 287, 319
 선신 善信 55
 선신니 善信尼 475
 〈선운산〉 〈禪雲山〉 167, 372
 선장 禪藏 54
 선조기법 線彫技法 254, 256
 선조묘 先祖廟 33
 선형산신사 금동보살입상 船形山神社
 金銅菩薩立像 486
 설채법 設彩法 186
 설총 薛聰 4
 《섭대승론》 《攝大乘論》 82, 85
 섭론종 攝論宗 53
 성곽도 城郭圖 411
 성년식 成年式 109
 성덕태자(쇼도구다이시) 聖德太子
 55, 471
 성산산성 城山山城 321
 성시국가 城市國家 295
 성읍국가 城邑國家 295, 330
 성전사원 成典寺院 46
 성주사 聖住寺 63
 성흥산성 聖興山城 313
 세 洗 437, 445
 세속오계 世俗五戒 3, 120
 세장형석실 細長形石室 359 360
 세형동검 細形銅劍 329
 소 簫 378
 소골 蘇骨 440
 소루 小累 269
 소록 疎勒(Kashgar) 378
 소릉귀문 小麥貴文 487
 소수림왕 小獸林王 1, 49, 113
 소아마자 蘇我馬子 55, 66, 67
 소아씨 蘇我氏 475
 소창(오구라)수집품 小倉蒐集品 257,
 265
 손성 孫盛 113
 솔거 率居 8
 송전광소장 금동반가사유상 松田光所藏
 金銅半跏思惟像 485
 송축가 頌祝歌 160
 솔 452
 수레 408, 409
 수렵도 狩獵圖 185
 수렵총 狩獵塚 7
 수묘 守廟(墓) 34
 수묘인 守墓人 126
 수문천왕 守門天王 192
 수박희 手搏戲 179, 185
 수산리 벽화분 水山里 壁畫墳 191,
 333
 수원사 水源寺 61, 76
 수혈 隧穴 16
 수혈식 석실분 堅穴式 石室墳 344,
 359, 360
 수혈주거 堅穴住居 457
 숙신 肅愼 147, 148
 순도 順道 1, 49
 순수적석총 純粹積石塚 340
 순수토광묘 純粹土壙墓 334, 335
 순장 殉葬 358
 순흥 기미명벽화분 順興 己未銘壁畫墳
 355
 슬 瑟 367, 368, 373, 375
 승관 僧官 476
 승랑 僧朗 52
 승민 僧旻 82
 승정 僧正 52

승학선인 乘鶴仙人 185
 시덕 施德 380
 시루 飴 258, 451, 452
 시조묘 始祖廟 18, 32
 시조신 始祖神 110
 식리총 飾履塚 259
 《식점》 《式占》 119
 신궁 神宮 32
 신귀형 토기 神龜形 土器 218
 신나라 新나라 466
 《신농본초경집주》 《神農本草經集註》 407
 신라고분 新羅古墳 349
 신라금(시라기고토) 新羅琴 373, 374, 380
 신라 농업 新羅 農業 426
 〈신라법사방〉 〈新羅法師方〉 426
 신라석실분 新羅石室墳 361
 신라악 新羅樂 381, 382
 신라어 新羅語 138, 141, 144
 신라6촌 新羅六村 160
 신라 의학학 新羅 醫藥學 425
 신라토기 新羅土器 266, 428
 신모 神母 44
 신묘명 금동(일광)삼존불상 辛卯銘 金銅 (一光)三尊佛像 6, 225, 226, 482
 신묘 神廟 18
 신사 神祠 44
 신선사 神仙寺 79
 신성 新城 304
 신수 神獸 197
 신수경 神獸鏡 262
 신수문 神獸文 262
 〈신열악〉 〈辛熱樂〉 158, 375
 《신집》 《新集》 4, 123, 125
 신흥리산성 新興里山城 314
 실법사 實法師 52
 실크로드 Silk Road 254
 〈실혜가〉 〈實兮歌〉 168
 심주 心柱 276

십부기 十部伎 378
 13군 태수배례도 13郡太守拜禮圖 181
 12곡명 十二曲名 373, 374
 10자늬 十字鈕 258
 쌍계사 雙溪寺 87
 쌍기 雙翼 469
 쌍북리 雙北里 343
 쌍분(표형분) 雙墳(瓢形墳) 351, 352
 쌍상총 雙床塚 355
 쌍수정 雙樹亭 291
 쌍영총 雙楹塚 190, 333
 쌍조쌍동물문 雙鳥雙動物文 267
 쌍타자 雙陀子 329
 쌍현무 雙玄武 191
 씨사 氏寺 63

[ㅇ]

아굴마 我掘摩 69
 아노 阿老 34, 50
 아도 阿道 2, 49, 50, 69
 아라가야 수장묘 阿羅伽伽 首長墓 362
 아신왕 阿莘王 391
 아악(가가쿠) 雅樂 379
 아안 阿晏 473
 아좌태자 阿佐太子 8, 198, 487
 아지길사 阿知吉師 468
 아직기 阿直岐 468
 아직사등 阿直史等 468
 아차산성 峨嵋山城 305
 《악학궤범》 《樂學軌範》 9, 369
 안국기 安國伎 377
 안라국 安羅國 321
 안부지리 鞍部止利 481
 안성천 安城川 340
 안악 1·2·3호분 安岳 1·2·3號墳 176, 183, 191, 207, 332, 333, 368
 안압지 雁鴨池 267
 안장법사 安藏法師 74
 안장왕릉 安藏王陵 334

- 안학궁 安鶴宮 284, 285, 289, 290, 299
 안홍 安弘 83, 84
 안흥사 安興寺 86
 양연모양 노신 仰蓮貌樣 爐身 259
 양와신전직지장 仰臥伸展直肢葬 352
 약수리 고분 출토 세환이식 藥水里 古墳 出土 細環耳飾 255
 약수리 벽화분 藥水里 壁畫墳 333
 양관와위사의 梁官瓦爲師矣 265
 양귀문 陽貴文 487
 양동리 고분군 良洞里 古墳群 358, 359
 양민 73호 良民 73號 328
 〈양산가〉 〈陽山歌〉 168
 양산 부부총 梁山 夫婦塚 361
 양악 洋樂 365
 양원왕릉 陽原王陵 334
 양이두 羊耳頭 373
 양주산대놀이 楊州山臺놀이 381
 양주 陽鑄 258
 양지 良志 7
 〈양직공도〉 〈梁職貢圖〉 435, 445
 양평출토 금동불입상 楊平出土 金銅佛立像 240
 어라하 於羅瑕 140, 147
 어륙 於陸 140, 147
 어숙 於宿 203
 어숙술간묘 於宿述干墓 202
 어자문기법 魚子文技法 256, 260
 얼음 454
 원저호 圓底壺 265
 원통형 립 圓筒形 甗 263
 여나산 余那山 376
 여래좌상 如來坐像 187
 《역림》 《易林》 119
 역박사 易博士 412
 역박사 曆博士 412, 477
 역법 曆法 403, 412
 연가7년 기미년명 금동여래입상 延嘉七年 己未年銘 金銅如來立像 6, 223
 연개소문 淵蓋蘇文 56, 94
 연꽃무늬 수막새 265
 연단 煉丹 407, 408, 426
 연등회 燃燈會 44
 연뢰형(연봉오리형) 손잡이 蓮蕾形 손잡이 259
 연리수 連理樹 184
 연속교룡문 連續蛟龍文 197
 연수재명합 延壽在銘盒 261
 연애 碾磗 408
 연양 延陽 372
 연유리 벽 상감유리 鉛琉璃 壁 象嵌琉璃 262
 연자매(마) 研子매(磨) 408
 연지 蓮池 307
 연질토기 軟質土器 264
 연화문 蓮花文 265, 267, 346
 연화화생 蓮花化生 187
 《열반경》 《涅槃經》 62, 119
 열반종 涅槃宗 3
 엽산고(하야시리) 葉山尻 465
 영강7연명광배 永康七年銘光背 226
 영계 令契 67
 영고석 詠孤石 9
 영고 迎鼓 153, 155, 366, 382
 영락 瓔珞 257
 영묘사 靈廟寺 76, 266
 영신주술 迎神呪術 161
 영암 靈巖 469
 영암 태간리 자라봉고분 靈岩 泰澗里 자라峰古墳 363
 영예 靈睿 52
 영위법사 令威法師 67
 영일 냉수리신라비 迎日 冷水里新羅碑 9, 25
 영조율사 令照律師 67
 영주 가흥리 마애삼존불상 榮州 可興里 磨崖三尊佛像 482
 영천 어은동 출토 청동머고리 永川 漁隱洞 出土 靑銅머고리 214

- 영담사팔각칠층석탑 靈塔寺八角七層石塔 270
- 예산 4면석불 禮山 4面石佛 231, 233
- 예 濺 147, 148, 153, 366
- 오경박사 五經博士 5, 113
- 오녀산성 五女山城 296
- 오도령구문 五道嶺溝門 329
- 오두미도 五斗米道 90
- 오라관 烏羅冠 255, 443
- 오르도스 Ordos 215
- 오리형토기 오리形土器 266
- 오묘 五廟 32, 33
- 오방제 五方制 310
- 오부 五部 310
- 오제지신 五帝之神 26
- 오채복 五采服 438, 441, 442
- 오체투지 五體投地 189
- 오함사 烏含寺 63
- 오행사상 五行思想 472
- 오현 五絃 369, 380
- 오현비파 五絃琵琶 368, 369
- 오환선비동이전 烏丸鮮卑東夷傳 146
- 오회분 4·5호묘 五盔墳4·5號墓 192, 333
- 옥녀봉 玉女峰 287
- 옥보고 玉寶高 9
- 옥충주자 玉蟲廚子 274
- 은돌 458
- 웅관 甕棺 466
- 웅관묘 甕棺墓 326, 334, 337, 342
- 웅관장 甕棺葬 336
- 웅관토축묘 甕棺土築墓 343
- 와궁후 臥筵篋 378
- 와박사 瓦博士 420, 479, 487
- 와적기단 瓦積基壇 275
- 와전 瓦塼 263~266
- 와질토기 瓦質土器 263
- 완함 阮咸 372
- ‘왕’자문 ‘王’字文 187
- 왕고덕 王高德 52
- 왕립음악기관 王立音樂機關 376, 378
- 왕망 王莽 466
- 왕산악 王山岳 368
- 왕실음악 王室音樂 162
- 왕인 王仁 468~470
- 왕인천만궁 王仁天滿宮 470
- 왕후사 王后寺 87
- 왕흥사 王興寺 2, 63, 65
- 왜인전 倭人傳 464
- 외관의 인동문장식 外冠의 忍冬文裝飾 257
- 외몽고 NOIN-ULA고분 外蒙古 NOIN-ULA古墳 364
- 요갱 腰坑 357
- 요고 腰鼓 378
- 요동성도 遼東城圖 411
- 요동성총 遼東城塚 183, 333
- 요령성 서차구 유적 遼寧省 西岔溝 遺蹟 335
- 요업기술 窯業技術 420
- 요지 窯址 265, 267
- 요철법 凹凸法 181
- 요폐 腰佩 254
- 용궁 동굴 龍宮 洞窟 463
- 용화수 龍華樹 245
- 용화향도 龍華香徒 103
- 우경 牛耕 448
- 우교차도 牛轎車圖 181
- 우륵 于勒 9, 167, 373, 374, 377
- 우마도 牛馬圖 203
- 우산묘구 M2325 禹山墓區 M2325 264
- 우산 禹山 183
- 〈우식곡〉 〈憂息曲〉 166, 375
- 우역 郵驛 316
- 운라산성 雲羅山城 322
- 울산성 蔚山城 313
- 웅진(공주) 熊津(公州) 198
- 웅진성 熊津城 307
- 원가력 元嘉曆 477
- 원각사 금동삼존불상 圓覺寺 金銅三尊

- 佛像 481
 원광 圓光 3, 81, 82, 85, 86, 120
 원광법사 圓光法師 3
 원구 圓丘 328
 원권문 圓圈文 267
 원방형(말각장방형) 圓方形(抹角長方形) 334, 357
 원삼국시대 목관묘 原三國時代 木棺墓 339
 원삼국시대 분묘 原三國時代 墳墓 339
 원시 돌각담무덤 기원설 原始 돌각담무덤 起源說 329
 원시석실묘 原始石室墓 341
 원오리 이조보살입상 元五里 泥造菩薩立像 228
 원표 元表 2
 원형봉토분 圓形封土墳 348, 351
 원형분 圓形墳 331
 원효 元曉 101
 원흥사 元興寺 55, 66
 월계동 고분 月桂洞 古墳 363, 364
 월광태자 月光太子 89
 월성 月城 266, 294
 월성로 13호 고분 月城路 13號 古墳 260
 위나암성 尉那巖城 297
 위례성 慰禮城 286, 305
 위석묘 圍石墓 341
 위존성 魏存誠 328
 위해 尉解 434, 445
 유 儒 433, 434, 441, 445
 유구석부 有溝石斧 465
 유금동능형식편 鑲金銅菱形飾片 256
 유기 留記 4, 123
 유리 琉璃 429
 유리공예 琉璃工藝 254, 262
 유리구슬 琉璃구슬 421, 422, 429
 유리굽은옥(곡옥) 琉璃曲玉 429
 유리옥 琉璃玉 263
 유리왕 瑠璃王 158, 375
 유리잔 琉璃盞 263
 유리팔찌 琉璃팔찌 263
 유문경계 乳文鏡系 262
 유수림 榆樹林 329
 유약 釉藥 263
 유운문 流雲文 346
 유자례 遺子禮 445
 유주자사 幽州刺史 178
 육고 肉庫 450
 은령총 銀鈴塚 351
 은원의 가반 銀鉤의 加盤 260
 은제당초문합 銀製唐草文盒 257
 은제요패 銀製腰佩 257
 은제팔찌 銀製팔찌 257
 을묘년국강상광개토지호태왕호우십 乙卯年國岡上廣開土之好太王壺杆十 258
 을지문덕 乙支文德 94
 음독 音讀 136
 음성서 音聲署 376
 읍내리 벽화고분 邑內里壁畫古墳 202
 읍루 挹婁 147, 148
 웅방 鷹坊 392
 의기 儀器 262
 의박사 醫博士 412, 414, 478
 의성 탑리고분 義城 塔里古墳 363
 《의심방》 《醫心方》 414, 426, 478
 의연 義淵 52
 의자손수대경 宜子孫獸帶鏡 262
 의장 意匠 267
 의취적 義嘴笛 378
 이견대 利見臺 376
 이규보 李奎報 165
 이기 利器 254
 이능화 李能化 93
 이두 吏讀 4, 136
 이문진 李文眞 4, 117, 123
 이불란사 伊弗蘭寺 49, 50
 이사부 異斯夫 129, 392
 이성산성 二聖山城 31, 286, 305
 이안 利安 374

이옹식 二甕式 342
 이인무 二人舞 384
 이적 李勣 303
 이진복 李殿福 328
 이중기단 二重基壇 274
 이중호식 二重壺式 343
 이차돈 異次頓 2
 이형고분 異形古墳 328
 인각명과 印刻銘瓦 312
 인동당초무늬 忍冬唐草무늬 187
 인동문 忍冬文 196, 264, 265, 267
 인두대의 냇돌(천원석) 人頭大의 川原石 351
 인면문 人面文 267
 인물도 人物圖 333
 인물풍속도 人物風俗圖 333
 인법사 印法師 52
 인사라아 因斯羅我 198
 《인왕경》 《仁王經》 2, 82
 《인왕호국반야바라밀다경》 《仁王護國般若波羅蜜多經》 56
 인자형대공 人字形臺工 269
 1혈1인장 一穴一人葬 352
 일관부 日官部 413
 일기(이끼) 겹기유적 壹岐 鎌崎遺蹟 463
 일라 日羅 66
 일립 日立 473
 《일본서기》 《日本書紀》 55, 57, 127, 128
 일본다장(동분이다혈합장) 一墳多葬(同墳異多穴合葬) 352
 일본병장(동분이혈합장) 一墳并葬(同墳異穴合葬) 352
 일본일장 一墳一葬 352
 일성니사금 逸聖尼師今 315
 일식 日蝕 402, 425
 일연 一然 69, 70
 일월성신 日月星辰 401
 일자 日者 403
 1탑3금당식 一塔三金堂式 270, 272,

300
 임강사지 臨江寺址 277
 임류각지 臨流閣址 307
 임신서기석 壬申誓記石 9, 121, 212
 임해전 臨海殿 294

[즈]

자각추점 刺刻錐点 257
 자강도 초산군 6호분 慈江道 楚山郡 6號墳 328
 자기 磁器 263
 자비마립간 慈悲麻立干 320
 자성군 송암리 고분군 慈城郡 松岩里古墳群 328, 330
 자성 子城 303
 자장 慈藏 3, 84, 86
 자점문 刺点文 256, 257
 잔줄무늬 청동거울 잔줄무늬 靑銅거울 398
 잔탁 盞托 259
 잡기 雜伎 378
 잡희 雜戲 394
 장 醬 453
 장경병 長頸瓶 265
 장경호 長頸壺 264, 266
 장골기 臍骨器 265
 장군산 將軍山 329
 장군총 將軍塚 5, 19
 장니 障泥 352
 장대석 長臺石 346
 장덕백매순 將德白昧淳 487
 장법 葬法 336
 장빙고 臧氷庫 159
 장소 長簫 372
 장수왕릉 長壽王陵 333
 장식금구 裝飾金具 254
 장식보검 裝飾寶劍 256
 장신구 裝身具 254
 장안성 長安城 302

- 장엄사 莊嚴寺 82
 장유형석축 長柳形石鑿 465
 장육불 丈六佛 255
 장자강 長慈江 327, 329
 장전공사사평가대대 長甸公社四平街大隊 329
 장천 1·2호분 長川 1·2號墳 187, 222, 223, 264, 368, 369
 장대지 將台址 307
 〈장한성〉 〈長漢城〉 166, 372, 376
 채(절)금 載(切)金 267
 채성 在城 315
 쟁간 筭竿 9
 저묘고분 箸墓古墳 364
 적 笛 369, 371, 379
 적고리 赤古里 434
 적석목곽분 積石木槨墳 326, 351, 353
 적석총 積石塚 175, 326, 329, 330, 334, 337, 340, 341, 353, 361
 적석토축묘 積石土築墓 336, 341
 전륜성왕사상 轉輪聖王思想 75
 전방후원분 前方後圓墳 328, 363, 364
 전신덕왕릉 傳神德王陵 355
 전안나왕궁지 傳安羅王宮址 321
 전축기단 塼築基壇 275
 전축분 塼築墳 199, 264, 332, 334, 346, 348
 전토 墳土 335
 전한경 前漢鏡 350, 353
 전향석총고분 纏向石塚古墳 364
 절천정단실묘 折天井單室墓 332
 절풍 折風 434, 438, 440, 446
 점선조(자점문)기법 点線彫(刺点文)技法 256, 257
 점성대 占星台 412, 413
 점이지대 漸移地帶 334
 점찰법회 占察法會 82, 86
 《점찰선악업보경》 《占察善惡業報經》 82
 점토곽 粘土槨 336
 정관 貞觀 378
 정릉사지 定陵寺址 6, 270, 271
 정림사 소장 금동반가상 淨林寺 所藏 金銅半跏像 485
 정림사지 定林寺址 63, 234, 280, 480
 정림사지 오층석탑 定林寺址 五層石塔 275, 276, 489
 정방 正方 70
 정백운 鄭栢雲 328
 정사당 政事堂 315
 〈정읍〉 〈井邑〉 9, 167
 정찬영 鄭燦永 328
 정창원 正倉院 373
 정토왕생 淨土往生 182
 제고 齊鼓 378
 제관 祭官 37
 제일 현도군 第一 玄菟郡 329
 제천의식 祭天儀式 153, 367, 371
 제형산공사삼가자대대 弟兄山公社三家子大隊 329
 조금기법 彫金技法 256
 조묘 祖廟 33
 조방제 條坊制 316
 조불공 造佛工 479
 조사공 造寺工 479
 조신 調信 77
 조와사 造瓦師 487
 조우관 鳥羽冠 440
 조형식 鳥形飾 257
 족좌 足座 267
 종묘 宗廟 20
 좌백련 佐伯連 66
 좌별(가무나기 와께) 左別 468
 《좌전》 《左傳》 110
 좌절 左口 310
 주구토광묘 周溝土壙墓 326, 334, 335, 338, 339
 주두 柱斗 269
 주미사 舟尾寺 61
 구분 朱粉 176

- 주사 朱砂 176
 주술화 呪術畫 174
 주악상 奏樂像 260
 주악천인 奏樂天人 198
 주영헌 朱榮憲 328
 주작 朱雀 186, 346
 구조 鑄造 254~256
 주지 注知 9
 주칠 朱漆 267, 358
 주칠금박귀갑문 朱漆金箔龜甲文 200
 《주후비집방》 《肘後備集方》 408
 죽동리 竹東里 349
 죽지랑 竹旨郎 76, 77, 319
 준법 敍法 194
 중국동 을분 中谷洞 乙墳 344
 중국 타호정고분 中國 打虎亭古墳 364
 중국 회도 中國 灰陶 265
 중사 中祀 319
 중원고구려비 中原高句麗碑 8, 207
 중절 中冓 310
 중층완식 重層碗式 343
 중관양식 重瓣樣式 267
 중형분 中型墳 351
 즐문토기 櫛文土器 463
 증산성 甌山城 314
 증전식(소바다) 토기 曾田式 土器 463
 지 簾 371, 380
 〈지귀사〉 〈志鬼詞〉 169, 170
 지둔도림 支遁道林 50, 51
 지리(도리)양식 止利樣式 253, 257
 〈지리산〉 〈智異山〉 167
 지명법사 知明法師 64
 지변수전 池邊水田 66
 〈지서〉 〈芝栖〉 166
 지석 誌石 30
 지석묘 支石墓 466
 지석묘 기원설 支石墓 起源說 329
 지의 智顗 53
 지적 智寂 52
 지혜 智惠 86
 지황 智晃 53
 직경 直頸 369
 진대법 賑貸法 451
 진덕왕 眞德王 376
 진로 進奴 380
 진묘북벽묵서 鎭墓北壁墨書 118
 진묘수 鎭墓獸 218, 349
 진안갈문왕 眞安葛文王 79
 《진양추》 《晉陽秋》 113, 114
 진자 眞慈 76
 진정갈문왕 眞正葛文王 79
 진주 眞珠 眞珠 289
 진타 進陀 380
 진파리 1·4·10호분 眞坡里 1·4·10호墳 191, 333, 402
 진흥거푸집 398
 진흥왕 眞興王 375
 진흥왕순수비 眞興王巡狩碑 121
 질그릇 420
 질현성 迭峴城 309
 집모양토기(가형토기) 家形土器 459
 집안 우산 41호분 集安 禹山 41號墳 264
 집안 마선구 1호벽화묘 集安 麻線溝 1號壁畫墓 264
 집안 만보정 고분군 集安 萬寶汀 古墳群 256, 257, 264, 332, 355
 집안 만보정 1,368호분 集安 萬寶汀 1,368號墳 332, 355
 집안 칠성산 96호분 集安 七星山 96號墳 258, 264
 [耑]
 차자표기 借字表記 136, 172
 찰주 檫柱 276
 창녕비 昌寧碑 9
 창망 昌枋 269
 창왕명 사리불감 昌王銘 舍利佛龕 260

- 창작계 가악 創作系 歌樂 166
창직 倉直 319
채약사 採藥師 414, 478
채진 彩典 202
채협총 彩篋塚 183
채화 칠 彩花 漆 267
책 幀 434, 439
책계왕 責稽王 345, 347
척 尺 376
척경비 拓境碑 207
천경림 天鏡林 41
〈천관원사〉 〈天冠怨詞〉 168
천광 淺墳 334
천금채 千金菜 450
천마도 天馬圖 8, 203
천마총 天馬塚 8, 257, 351, 353
천문대 天文臺 403, 413, 423
천문도 天文圖 400, 401
천문박사 天文博士 424
〈천상열차분야지도〉 〈天象列次分野之圖〉 400, 401
천신 天神 197
천왕사지 天王寺址 480
천의 天衣 200
천전리 암각서 川前里 岩刻書 211
천존상 天尊像 3
천추총 千秋塚 340
천축기 天竺伎 377
천태종 天台宗 53
철검명 鐵劍銘 205
철기문화 鐵器文化 159, 399, 400
철정 鐵錠 417
철제공구 鐵製工具 428
철제농기구 鐵製農器具 416, 426
철제환두대도 鐵製環頭大刀 205
첨성대 瞻星臺 6, 403, 422~424
첨차 簷遮 269
청담격의불교 淸談格義佛教 51
청동거울 靑銅거울 397~399
청동그릇 靑銅그릇 427
청동기 문화단계 靑銅器 文化段階 155
청동기시대 靑銅器時代 464
청동대구 靑銅帶具 339
청동발 靑銅鉢 259
청동제함 靑銅製盒 260
청룡 靑龍 186, 346
청마산성 靑馬山城 309, 313
청산성 靑山城 309
청상기 淸商伎 377
청상악 淸商樂 371
청자반구호 靑磁盤口壺 341
청제 靑堤 449
청제비 靑堤碑 211
체마소대총 遞馬所大塚 347
초계 草溪 374
초공 草拱 269
초당사 草堂寺 52
초두 鋤斗 258, 261
초화당초문 草花唐草文 267
최치원 崔致遠 49, 50, 89, 103
추고천황 推古天皇 55
추쟁 擲筭 378
추점문 錐點文 256, 257
추항 筭項 3
축국 蹴鞠 389
축법심 竺法深 50, 51
축조기법 蹴彫技法 256, 257
출(산)자형 입식 出(山)字形 立飾 257, 353
출행도 出行圖 179
충효동 고분군 忠孝洞 古墳群 355
취반 炊飯 259
치세관 治世觀 92, 96
칠보공양행사도 七寶供養行事圖 181
칠부악 七部樂 377
칠악사 漆岳寺 30, 63
칠지도 七支刀 209, 256, 417, 418
칠현금 七絃琴 368
침각 針刻 261
침통(바늘통) 針筒 254

[ㄱ]

컷 글라스 완 Cut Glass 鏡 263

[ㄴ]

타악기 打樂器 382
타출기법 打出技法 255, 256
탁무 鐸舞 383
탄금선인 彈琴仙人 185
탄쟁 彈箏 378
탄현 炭峴 309
탑 榻 456
탑곡의 상 塔谷의 像 235
태서법 泰西法 181
태안 마애삼존불상 泰安 磨崖三尊佛像 482
태자사유상 太子思惟像 245
태평초공사포자연대대 太平哨公社泡子 沿大隊 329
태학 太學 4, 113~117, 123, 125
태후묘 太后廟 18
탱주 撐柱 276
토갱묘 土坑墓 335
토광목곽묘 土塋木槨墓 326, 334, 356, 358
토광묘 土塋墓 326, 334, 337
토광적석묘 土塋積石墓 337
토기 土器 263
토돈묘 土墩墓 338, 364
토류석(호석) 土留石(護石) 351
토성리사지 土城里寺址 270
토용 土俑 266
토우 土偶 216
토우장식 土偶裝飾 266
토장 土葬 336, 343
토장토돈묘 土葬土墩墓 361
토지신 土地神 30
토축묘 土築墓 326, 334~336, 338

통구사신총 通溝四神塚 192, 333
통소 洞簫 372
투조기법 透彫技法 256
투호 投壺 389

[ㄷ]

파르티안 쏫 Parthian Shot 388
파문 巴文 265
파사니사금 婆娑尼師今 315
파상문 波狀文 257, 266
파형동기 巴形銅器 358
판부(이다쓰께)유적 板付遺蹟 465
판석조 석실분 板石造 石室墳 345, 346
팔각형탑 八角形塔 300
팔관회 八關會 2, 44, 56, 74
팔미신사 八尾神社 469
팔관신사 八坂神社 469
패 貝 378
편단우견 불입상 偏袒右肩 佛立像 236, 244
편마암 片麻巖 199
평사천정식 平斜天井式 344, 345, 347
평양 고산리 10호분 平壤 高山里 10號墳 346
평양 대동군 임원면 상오리사지 平壤 大同郡 林原面 上五里寺址 6, 270
평양 대성산성 고산동 우물 平壤 大聖山城 高山洞 우물 264
평양성 平壤城 284, 302
평양 청암리사지 平壤 淸岩里寺址 6, 237, 270, 279, 480
평양 청암리토성 平壤 淸岩里土城 256, 299
평양 출토 태환이식 平壤 出土 太環耳飾 255
평양 토포리대총(문자왕릉) 平壤 土浦里大塚(文咨王陵) 264, 334
평양 평천리 출토 금동반가사유상 平壤

平川里 出土 金銅半跏思惟像 6, 236
 평양 호남리 사신총(안원왕릉) 平壤 湖
 南里 四神塚(安原王陵) 7, 334
 평원왕릉 平原王陵 334
 평저의 발 平底의鉢 264
 평천정 平天井 199, 331, 346
 평천정단실묘 平天井單室墓 332
 폐쇄식 閉塞式 354
 포 袍 433, 436, 442
 포 脯 453
 포도당초문 葡萄唐草文 267
 포핍 褒貶 129, 130
 표의문자 表意文字 136
 풍납동 토성 風納洞 土城 286, 305,
 306
 풍류가야금 風流伽倻琴 373
 풍류도 風流道 100
 풍속무 風俗舞 381
 풍속악 風俗樂 381
 〈풍요〉 〈風謠〉 169, 171
 풍요주술 豐饒呪術 155
 풍청리 고분군 豐淸里 古墳群 330
 풍포사 豐浦寺 67
 피화주술 避火呪術 169
 필물 筆簞 380

【ㅎ】

〈하가라도〉 〈下加羅都〉 167, 374
 하고성자고성 下古城子古城 297
 하구유지 河口遺址 264
 하기물 下奇物 374
 하다선장법사 何多宣藏法師 65
 하백여랑 河伯女郎 117
 하생신앙 下生信仰 75, 245
 하신열무 下辛熱舞 376
 한경 漢鏡 350
 한국형 청동검 韓國形 青銅劍 397
 한기무 韓伎舞 385
 한문어 漢文語 137

한사군 漢四郡 112
 한산 漢山 286
 《한서》 《漢書》 110, 113, 114
 한성 漢城 198
 한성시대 漢城時代 265
 한역가 漢譯歌 158
 〈한의방〉 〈韓醫方〉 415
 한자음 漢字音 136
 한자 표기법 漢字 表記法 136
 할석조 횡혈식석실 割石造 橫穴式石室
 336
 함안 말이산 고분군 咸安 末伊山 古墳群
 362, 363
 함평 신덕고분 咸平 神德古墳 363,
 364
 합개식 合蓋式 342
 합구식 合口式 342
 합도석부 蛤刀石斧 465
 해 醢 453
 해남 방산리 장고산 고분 海南 方山里
 長鼓山 古墳 363
 해남 용두리 말무덤고분 海南 龍頭里
 말무덤古墳 363
 《해동고승전》 《海東高僧傳》 42, 49,
 59, 68~70, 83
 〈해론가〉 〈亥論歌〉 168
 해인사 海印寺 89
 향가 鄉歌 135, 136, 163
 향비파 鄉琵琶 369
 향악 鄉樂 365, 367, 369
 향찰 鄉札 136
 《현겁경》 《賢劫經》 54
 현광 玄光 62
 현금 玄琴 380
 현도군 玄菟郡 113
 현무 玄武 346
 혈례 穴禮 40
 형제 吳(3호 吳) 兄弟 吳(3號 吳) 289
 혜공 惠空 86
 혜공왕 惠恭王 376

- 혜관 慧灌 55, 68, 476
 혜광 慧光 52
 혜량 惠亮 56, 74
 혜사선사 慧思禪師 62
 혜선 惠禪 54
 〈혜성가〉 〈曄星歌〉 9, 169~171
 혜성 기록 曄星 記錄 402
 혜숙 惠宿 86
 혜인 惠仁 60
 혜자 惠慈 53, 67, 471, 476
 혜지 慧持 52
 혜충 惠(慧)聰 54, 67
 혜편 惠便 54, 66
 혜현 惠現 62
 혜훈 惠勳 67
 호계사 虎溪寺 87
 호관묘 壺棺墓 343
 호국삼신 護國三神 40
 호우(합) 壺杆(盒) 258
 호우총 壺杆塚 258, 260
 호자 虎子 265
 호태왕명 호우 好太王銘 壺杆 261
 화 靴 433, 437, 442, 445
 화랑 花郎 114
 《화랑세기》 《花郎世紀》 102, 117
 화랑제도 花郎制度 356
 화사 畫師 119
 화사 畫士 479
 화상석묘 畫像石墓 184
 화생천인 化生天人 197
 화성 백곡리 석실분 華城 白谷里 石室
 墳 344, 345
 《화엄경》 《華嚴經》 60
 화이길사 和邇吉師 468
 화장골회 火葬骨灰 343, 355
 화장묘 火葬墓 326, 334, 343
 화전법 火田法 448
 화전 貨泉 466
 화청 花靑 176
 환도성 丸都城 297
 황남대총 皇南大塚 8, 257, 260, 351,
 353
 황남동 151호분 皇南洞 151號墳 351,
 354
 황등제 黃登堤 448
 황령산성 黃嶺山城 314
 황룡사 皇龍寺 2, 80~83, 85, 88, 266,
 279, 281
 황룡사 9층목탑 皇龍寺 九層木塔 6
 황룡사 심초석 皇龍寺 心礎石 257
 황룡사 장육존상 皇龍寺 丈六尊像 238,
 241, 482
 황유도관 黃釉陶灌 264
 황유도기 黃釉陶器 263
 황유도호 黃釉陶壺 264
 황유반 黃釉盤 264
 황유사이호 黃釉四耳壺 261
 황유장경사이호 黃釉長頸四耳壺 264
 〈황조가〉 〈黃鳥歌〉 9, 158~160, 165
 황초령비 黃草嶺碑 9, 212
 회색경질토기 灰色硬質土器 265
 회색토기 灰色土器 263
 〈회소곡〉 〈會蘇曲〉 158, 161, 164,
 165, 375, 385
 회악 會樂 375
 회유전문도기편 灰釉錢文陶器片 305
 횡구식석실분 橫口式石室墳 344, 354,
 356, 360, 361
 횡성출토 금동불입상 橫城出土 金銅佛
 立像 238, 240
 횡와식 橫臥式 342
 횡적 橫笛 368, 369, 380, 381
 횡취 橫吹 369
 횡혈식석실분 橫穴式石室墳 347, 354
 ~356, 362
 《효경》 《孝經》 113
 후장 厚葬 352
 훈독 訓讀 136
 흑도 黑陶 353
 흑색마연토기 黑色磨研土器 265

흑색마연토기호	黑色磨研土器壺	338	흥륜사지	興輪寺址	266
흑치상지	黑齒常之	120	흥법사	興法寺	476
흥국사	興國寺	50	흥복사	興福寺	50
흥륜사	興輪寺	60, 71, 73, 76	희생의례	犧牲儀禮	25

집필자

개요 정영호

I. 토착신앙

1. 고구려의 토착신앙 최광식
2. 백제의 토착신앙 최광식
3. 신라 토착신앙 최광식
4. 토착신앙과 불교와의 관계 최광식

II. 불교와 도교

1. 불교 신종원
2. 도교 양은용

III. 유학과 역사학

1. 역사개념의 출현 정구복
2. 유학과 역사학의 관계 정구복
3. 삼국의 유학 정구복
4. 삼국의 역사편찬 정구복

IV. 문학과 예술

1. 언어와 문학
 - 1) 언어 송기중
 - 2) 시가 성기옥
2. 회화 전호태

3. 서 예	이완우
4. 조 각	김리나
5. 공 예	이난영
6. 건 축	
1) 사원건축	김정기
2) 궁실 · 연못	김정기
3) 성 관	성주탁
7. 고 분	강인구
8. 음 악	송방송
9. 무용 · 체육	이진수

V. 과학기술

1. 한국 과학기술의 형성	전상운
2. 고구려의 과학과 기술	전상운
3. 백제의 과학과 기술	전상운
4. 신라의 과학과 기술	전상운

VI. 의식주 생활

1. 의생활	이종철 · 정명섭
2. 식생활	이종철 · 정명섭
3. 주생활	이종철 · 정명섭

VII. 문화의 일본 전파

1. 선사시대의 문물의 일본 전파	정영호
2. 학문과 사상	정영호
3. 역학 · 의학 · 기술	정영호
4. 예술 문화	정영호

한 국 사

8

삼국의 문화

1998년 12월 15일 인쇄 정부간행물심의필
1998년 12월 21일 발행 (No. 98-112-6-2)

발 행 국 사 편 찬 위 원 회

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6
전화 02-500-8286

인 쇄 탐 구 당 문 화 사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158
전화 02-3785-2213

판매처 프레스센터 정부간행물 판매센터
전화 02-734-6818
